

발간등록번호

진흥원-2024-907

2024년 제2차 한국보육진흥원 정책포럼

영아기 보육·양육 지원, 무엇이 필요한가

- 일시 2024년 6월 10일(월) 14:00 - 16:30
- 장소 페럼타워 페럼홀
- 주최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아동학회




한국보육진흥원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영아기 보육·양육 지원, 무엇이 필요한가

- **일시** 2024년 6월 10일(월) 14:00 -16:30
- **장소** 페럼타워 페럼홀
- **방법** 온-오프라인 동시진행  [한국보육진흥원](#)
- **주최**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아동학회
- **일정**

사회 김윤지 본부장(한국보육진흥원)

식 순	시간	내용	
등 록	13:30 -14:00(30분)	접수 및 일정안내	
개 회 식	14:00 -14:20(20분)	국민의례	
		개 회 사	나성웅 원장(한국보육진흥원)
		환 영 사	황혜신 회장(한국아동학회, 상명대 가족복지학과)
		격 려 사	정영훈 단장(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주제발표	14:20 -14:50(30분)	발 표 ①	영아기 보육·양육, 왜 중요한가 성지현 교수(성균관대 아동청소년학과)
	14:50 -15:20(30분)	발 표 ②	영아기 보육·양육, 어떻게 할 것인가 - 부모 지원을 중심으로 - 박유정 교수(서울대 아동가족학과)
휴 식	15:20 -15:30(10분)	-	
주제발표	15:30 -16:00(30분)	발 표 ③	영아기 보육·양육지원을 위한 정책 제안 양미선 선임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토 론	16:00 -16:30(30분)	종합토론	좌장 이주연 교수(전남대 생활복지학과) 김한나 부모 조영란 원장(다예린어린이집) 김정신 센터장(부산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유주연 교수(연성대 사회복지과 아동심리보육전공)
폐 회	16:30 -	-	

CONTENTS

개 회 사

나성웅 원장 (한국보육진흥원) 1

환 영 사

황혜신 회장 (한국아동학회, 상명대 가족복지학과) 5

격 려 사

정영훈 단장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7

주제발표

- 영아기 보육·양육, 왜 중요한가 11
성지현 교수 (성균관대 아동청소년학과)
- 영아기 보육·양육, 어떻게 할 것인가 - 부모 지원을 중심으로 - 25
박유정 교수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 영아기 보육·양육지원을 위한 정책 제안 41
양미선 선임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종합토론

- 영아기 자녀 양육의 행복한 가치를 위한 정책 지원 57
김한나 부모
- 영아기 성장을 위한 안정된 보육 63
조영란 원장 (다예린어린이집)
- 영아와 부모의 이익을 지지하는 영아 양육지원정책 69
김정신 센터장 (부산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 영아기 보육·양육의 가치를 만들어 가는 정책 75
유주연 교수 (연성대 사회복지과 아동심리보육전공)

• 2024년 제2차 한국보육진흥원 정책 포럼 •
영아기 보육·양육 지원, 무엇이 필요한가

개회사

나성웅 원장 (한국보육진흥원)

개 회 사

안녕하십니까.

한국보육진흥원장 나성웅입니다.

영아기는 전 생애에서 차지하는 기간이 3년 남짓으로 짧으나 이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기관 재원이 대부분인 유아와 달리, 영아는 월령, 부모의 취업 특성, 인적 돌봄 지원 여부 등에 따라 가정양육, 기관보육, 아이돌봄, 사설센터 이용 등 서비스의 선택 범위가 다양합니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유아와 영아는 ‘영유아기’의 정책으로 일괄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2020년 이후 초저출생 현상이 심화되면서 출산과 연계한 영아 정책이 점차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에서는 영아기 집중투자가 강조되었고, 제4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2023~2027)에서는 현금, 서비스, 돌봄 지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양육지원 강화에 대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2024년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에 따르면, 대부분 경제적인 부담 외에도 육아에 대한 부모 역할에 어려움을 보이며, 이는 ‘자녀 출산 및 양육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보육진흥원의 ‘2023년 유보통합 추진 관련 수요자 인식조사 연구’에서는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영아 부모들의 경우 ‘자녀와의 긍정적인 애착 형성’을 위해 직접 돌봄을 택하면서도 시간제 보육에 대한 이용 의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영아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와 더불어 가정 내 부모 양육을 연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영아의 개별적 특성과 부모,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실제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금 번 포럼에서는 한국아동학회와 함께 영아기 보육·양육의 중요성에 따라 부모 지원은 어떻게 해야 할지 살펴보고,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주제발표를 맡아주신 성균관대학교 성지현 교수님, 서울대학교 박유정 교수님, 육아정책연구소 양미선 선임연구위원님 감사합니다. 종합토론을 진행해주시는 전남대학교 이주연 교수님, 토론으로 귀한 의견 나눠주신 김한나 부모님, 조영란 원장님, 김정신 센터장님, 유주연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함께 포럼을 운영해주신 한국아동학회 황혜신 회장님, 임원진 분들을 비롯하여 본 포럼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이 현실로 체감되고 있습니다. 가정과 기관, 국가와 사회가 모두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 힘을 합칠 때입니다. 특히 어린이집은 0~5세 영유아가 모두 이용하는 기관으로 영아기 월령에 따른 중요성과 영아기에서 유아기로 성장하는 전환기를 충분히 고려하여, 더욱더 세심하고 전문적인 보육·양육을 위해 지금까지 그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과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영아기 부모교육과 영아 담당 교사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시간제보육과 육아쉽표 등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영아기 부모 양육지원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한국보육진흥원은 어린이집 품질관리 및 보육교직원 역량 지원, 그리고 가정양육지원에 대해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영유아기의 촘촘한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유보통합이라는 당면과제 앞에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와 영아에 대한 풍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교사가 함께 연계성 있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보육진흥원장 나성웅

• 2024년 제2차 한국보육진흥원 정책 포럼 •
영아기 보육·양육 지원, 무엇이 필요한가

환영사

황혜신 회장 (한국아동학회, 상명대 가족복지학과)

안녕하십니까?

한국아동학회 회장 황혜신입니다.

2024년 제2차 한국보육진흥원 정책포럼을 한국아동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영아기 보육·양육 지원, 무엇이 필요한가〉 주제로 열리는 포럼을 준비해 주신 한국보육진흥원 나성웅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과 한국아동학회 임원진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영아기 양육 및 보육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가정, 기관, 지역사회의 역할 등을 최신 연구와 사례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영아의 발달적 측면에서 보육과 양육의 방안 및 양육이 긍정적으로 논의되는 사회 분위기를 살펴보고, 영아기 보육과 양육 지원을 위한 구체적이며 유의미한 정책을 살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발달의 결정적 시기를 보내고 있는 영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포럼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영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오늘 이 자리가 의미 있는 시작이 되기를 기대하며, 다시 한번 이번 포럼을 준비해 주신 한국보육진흥원의 나성웅 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관계자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2024년 제2차 한국보육진흥원 정책 포럼 •
영아기 보육·양육 지원, 무엇이 필요한가

격려사

정영훈 단장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 2024년 제2차 한국보육진흥원 정책 포럼 •
영아기 보육·양육 지원, 무엇이 필요한가

주제발표 ①

영아기 보육·양육, 왜 중요한가

성지현 교수 (성균관대 아동청소년학과)

2024년 제2차 한국보육진흥원 정책 포럼

주제발표1

영아기 보육·양육, 왜 중요한가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교수
성지현

주요 내용

- 1 영아기 보육과 양육
- 2 최신 연구와 사례를 통한 실질적 이해
- 3 영아기 양육 및 보육의 중요성
- 4 가정, 기관, 지역사회 역할 강조

2

보육과 양육

일반적으로 자녀의 부모가 아닌
돌봄 전문가가 제공하는 것을
의미

보육 Childcare 保育

아동을 어른으로 성장하도록
돌보면서 지적·사회적 능력을
길러주는 것
주로 부모에 의해 이루어짐

양육 Nurture 養育

3

영아기 현황

- 인구
 - 0세 244,250명, 1세 264,788명, 2세 277,529명
- 연도별 합계 출산율
 - 2018년도부터 1 이하로 내려와 0.78
- 육아휴직
 - 여성 71.1%(93,245명), 남성 28.9%(37,884명)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자
 - 여성 17,465명, 남성 2,001명
- 저체중아(2500g 미만) 비율
 - 남아 6.47%, 여아 7.89%
- 출생시 평균 체중 - 2002년 이후 계속 감소
- 영유아건강검진 종합판정 결과
 - 양호한 영유아 ↓ 정밀평가 · 지속관리 필요영아 ↑

연도별 영유아 건강검진 종합판정 (2017~2021)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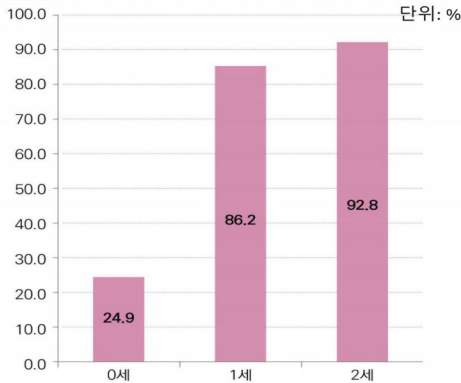
연도	양호 (%)	주의 (%)	정밀평가필요 (%)	지속관리필요 (%)
2017	84.84	9.14	6.02	
2018	82.67	10.39	6.94	
2019	82.67	10.52	7.36	
2020	80.61	11.08	8.31	
2021	80.50	10.70	8.02	0.72

주: 1) 주의: 건강에 이상이 없으나 식생활 습관, 환경개선 등 보호관리·예방조치가 필요하거나 다음 연령 검사에서 유역하여 보아야 하는 영유아
 2) 정밀평가필요: 즉시 치료를 요하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상담 또는 추적 검사가 필요한 영유아
 3) 지속관리필요: 발달 문제 등 이미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 중인 질환이 있다고 짐한 영유아(2021년부터 분류)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21 건강검진통계
 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50&tblId=DT_35007_N126&conn_path=I3 (인출일: 2023. 5. 24.)
 출처: 육아정책연구소 (2023). 2022 영유아 주요통계

4

영아기 보육과 양육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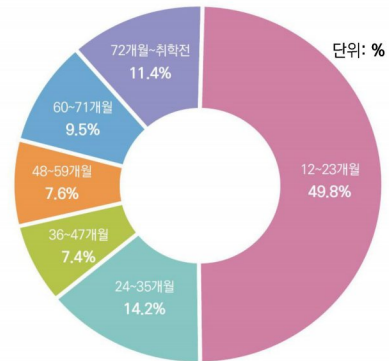
연령별 어린이집 이용 비율(2022)



자료: 1) 한국교육개발원(2022), 교육동계연보
 2) 보건복지부(2022), 보육통계(2022년 12월 말 기준)
 3) 행정안전부(2022), 주민등록 인구통계
 출처: 1)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동계서비스, <https://kess.kedi.re.kr/index> (인출일: 2023. 06. 15.)
 2)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s://www.mohw.go.kr> (인출일: 2023. 06. 15.)
 3)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https://pumin.mois.go.kr> (인출일: 2023. 06. 15.)

출처: 육아정책연구소 (2023), 2022 영유아 주요통계

아동 월령별 양육수당 지급 비중 (2022)



주: 보건복지부(2023), 보육통계, p. 299의 전국 데이터를 활용하여 월령별 비중을 산출함.
 자료: 보건복지부(각년도), 보육통계.
 출처: 보건복지부(2023), 2022년 12월 말 기준 보육통계, p. 299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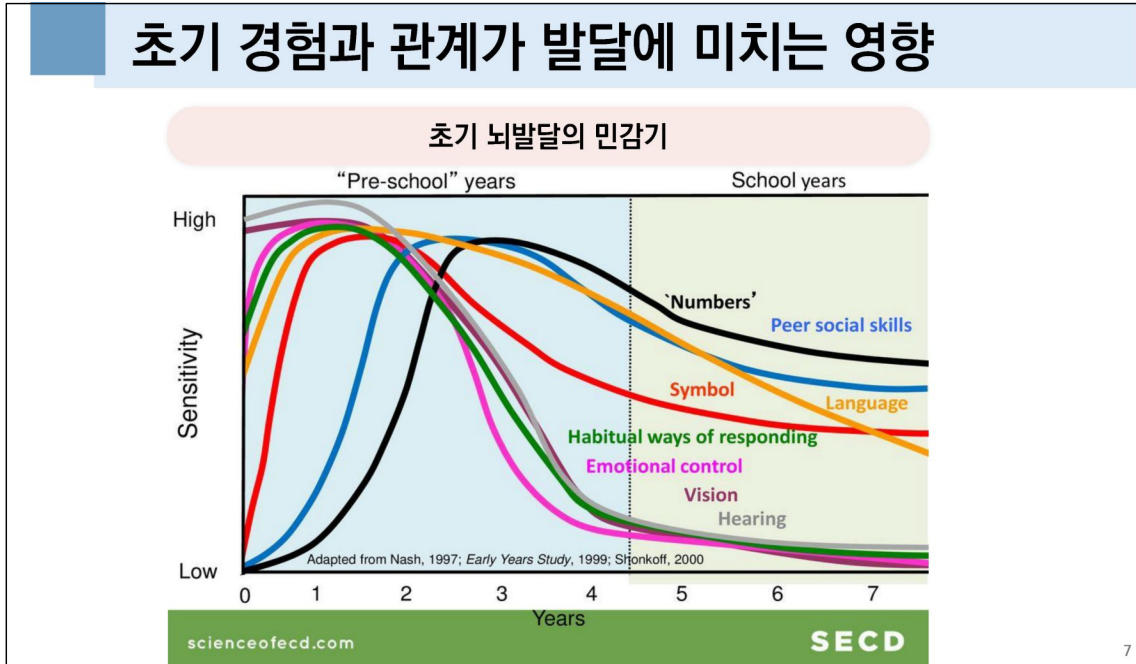
첫 1,000일

어머니와 자녀, 그리고 세상을 위한 중요한 시기
 이 시기 초기 관계와 경험은 평생 동안 중요
 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까요?



출처: <https://pristineorganics.com/1000-days-of-life/>

6



초기 경험과 관계가 발달에 미치는 영향

잠과 일과

출처: [The important role naps play in a child's development: an age-by-age guide \(parentscanada.com\)](http://parentscanada.com)

감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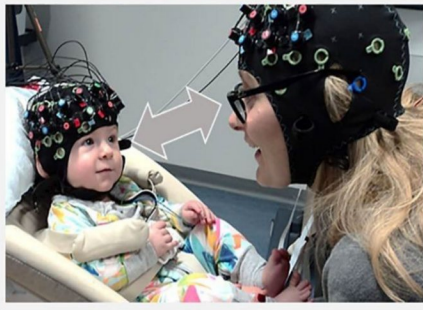
Brain regions that process somatosensory and emotional information to generate a feeling of safety

Afferent nerves in skin and deep tissues activated when caregivers hug their infants

Yoshida, S., & Funato, H. (2021). Physical contact in parent-infant relationship and its effect on fostering a feeling of safety. *iScience*, 24(7).

초기 경험과 관계가 발달에 미치는 영향

Dyadic Synchrony



e.g. language, affective touch

Triadic Synchrony



e.g. music, joint focus of attention



출처: Markova et al., (2019). Neurobehavioral interpersonal synchrony in early development: The role of interactional rhythms. *Frontiers in Psychology*, 10, 474651.

9

초기 경험과 관계가 발달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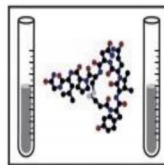
Biobehavioral synchrony in human attachm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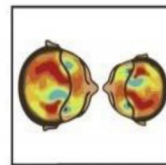
Behavioral synchrony



Heart rate coupling



Endocrine fit



Brain-to-brain synchrony



Parents

- Synchronized behavior in gaze, affect, vocal, and touch
- Mother-specific father-specific

- Synchronized HR during synchronized interactions

- Coordinated OT response following contact
- Coordinated cortisol response to stress

- Coordinated brain oscillations in alpha and gamma rhyth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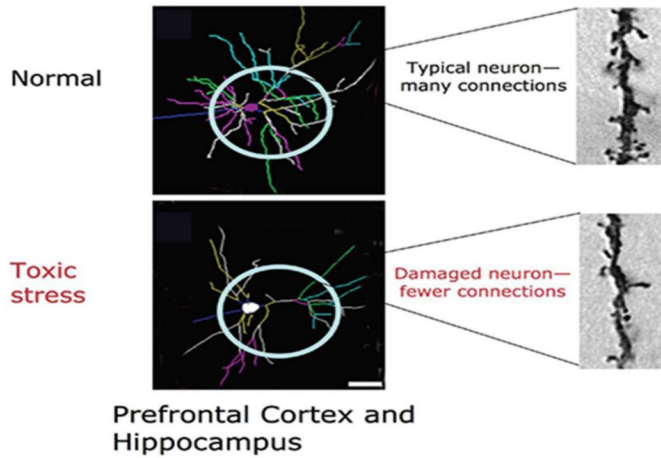
10

출처: Biobehavioral Synchrony <https://www.sciencedirect.com/topics/psychology/biobehavioral-synchrony> – an overview | ScienceDirect Topics

10

초기 경험과 관계가 발달에 미치는 영향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뇌 구조를 변화시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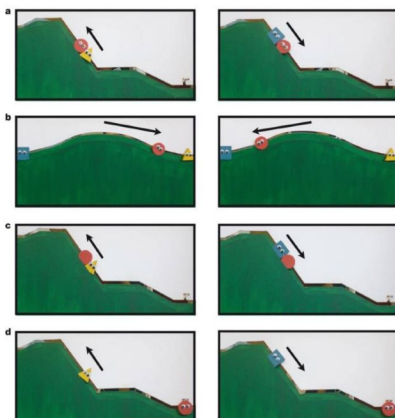


출처: How Adverse Experiences Affect Early Childhood Development (harvard.edu)

11

초기 경험과 관계가 발달에 미치는 영향

Social interaction events shown to infants



출처: Hamlin, J. K., Wynn, K., & Bloom, P. (2007). Social evaluation by preverbal infants. *Nature*, 450(7169), 557-559.

사회정서적 발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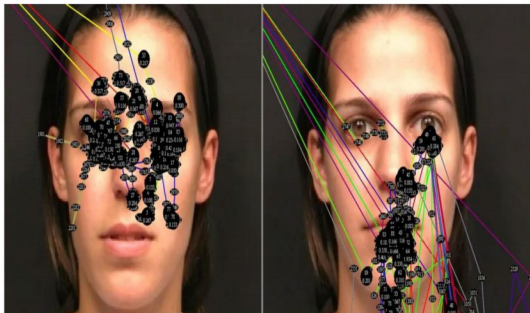


출처: Magazine - Can Babies Tell Right From Wrong? | The New York Times (youtube.com)

12

초기 경험과 관계가 발달에 미치는 영향

언어 발달



4개월 아기 (왼쪽)
(오른쪽)

8개월 아기

출처: Lewkowicz, D. J., & Hansen-Tift, A. M. (2012). Infants deploy selective attention to the mouth of a talking face when learning speech.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09(5), 1431-1436.

■ 언어 노출 및 언어발달 기회의 양적 감소

-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태어난 영아들의 언어, 운동 및 전반적 인지능력 표준검사에서 현저하게 낮은 점수를 받음 (Deoni et al., 2022)
- 팬데믹 시기 태어난 6개월~12개월 영아들의 의사소통, 운동발달 지연 (Firestein, et al.,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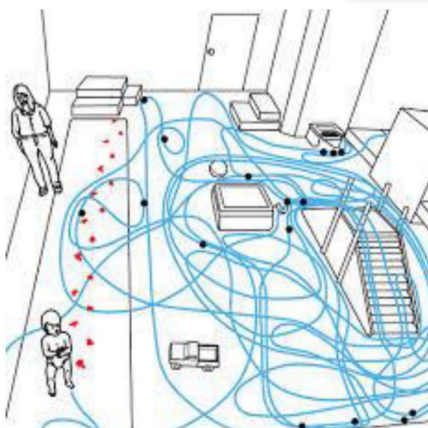
■ 마스크로 인한 언어적 자극의 질적 제한

- 언어발달 뿐만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 공감능력, 상대방의 정서를 인식하고 읽어내는 능력 발달에 부정적 영향
- 맥거크 효과(McGurk Effect) : 음성인식이 시각과 청각 간의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지각현상(Boersma, 2012; Calvert et al., 2004; Nath, & Beauchamp,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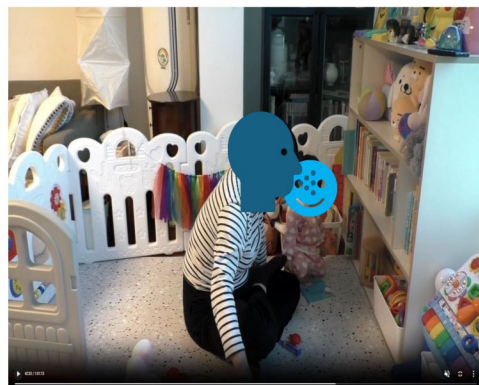
13

초기 경험과 관계가 발달에 미치는 영향

운동 발달



출처: <https://encrypted-tbn0.gstatic.com/images?q=tbn:ANd9GcTmlzGDK8ql5Hq-IMS2Xa6ZfWBraefVvb7-xg&s>



출처: Sung, J., Tamis-LeMonda, C. & Adolph, K. (2023). GlobalBABIES South Korea. Databrary. Retrieved May 15, 2024 from <https://nyu.databrary.org/volume/1593>.

14


초기 경험과 관계가 발달에 미치는 영향

출처: <https://www.avmschools.com/what-we-believe/>

Play and Learning Across a Year project

- <https://play-project.org/>
- 인생의 1시간 - 일상적인 가정 환경, 12개월, 18개월, 24개월 영아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
- 자료 수집 내용 및 절차
 - 1시간 가정에서의 자연스러운 놀이를 비디오 녹화
 - 집안의 음량 수준 측정
 - 가정 내 구조와 각 방 별 면적 측정
 - 5분간 구조화된 놀이
 - 설문지
 - 방문 후 기록
 - 비디오 녹화와 모든 측정 및 자료 기록 결과에 대한 품질 검토

Play and Learning Across a Year project



Video data library for behavioral scientists

Your Profile

Register

Find Clips

Find video and audio clips for presentations and to learn about procedures

Share D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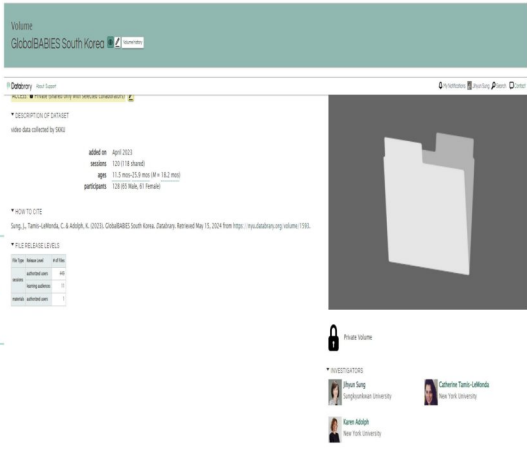
Improve transparency and reproducibility by sharing data and documenting procedures

Archive Data

Securely and permanently store all your project information, research data, and procedures

Use Data

Use shared data to answer new questions



Volume
GlobalBABIES South Korea

DESCRIPTION OF DATASET
video data collected by 9802

added on April 2021
species 120118 (dataset)
ages 18.5 mos-23.9 mos (N= 182 mos)
participants 123 (85 Male, 38 female)

HOW TO CITE
Sing, J., Tami-Lalanda, C. & Lalaba, K. 2023. GlobalBABIES South Korea. Databrary. Retrieved May 15, 2024 from <https://www.databrary.org/volumes/1756>.

FILE LIST (dataset)

File Name	Added
dataset	182
dataset	75
dataset	1

Project Volume

INVESTIGAT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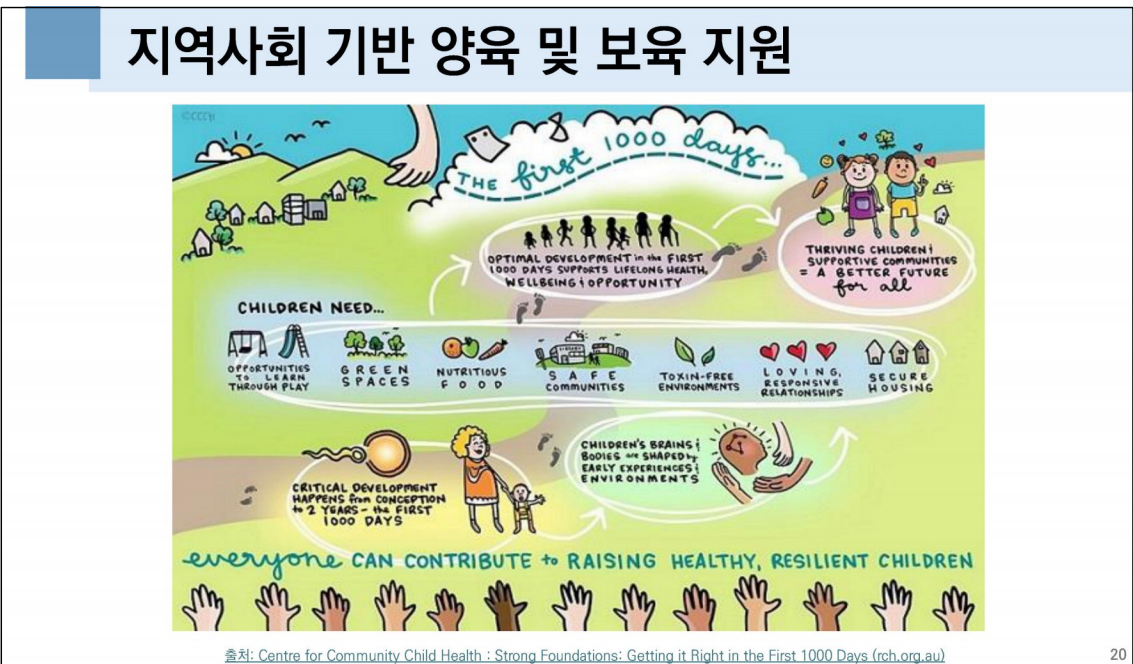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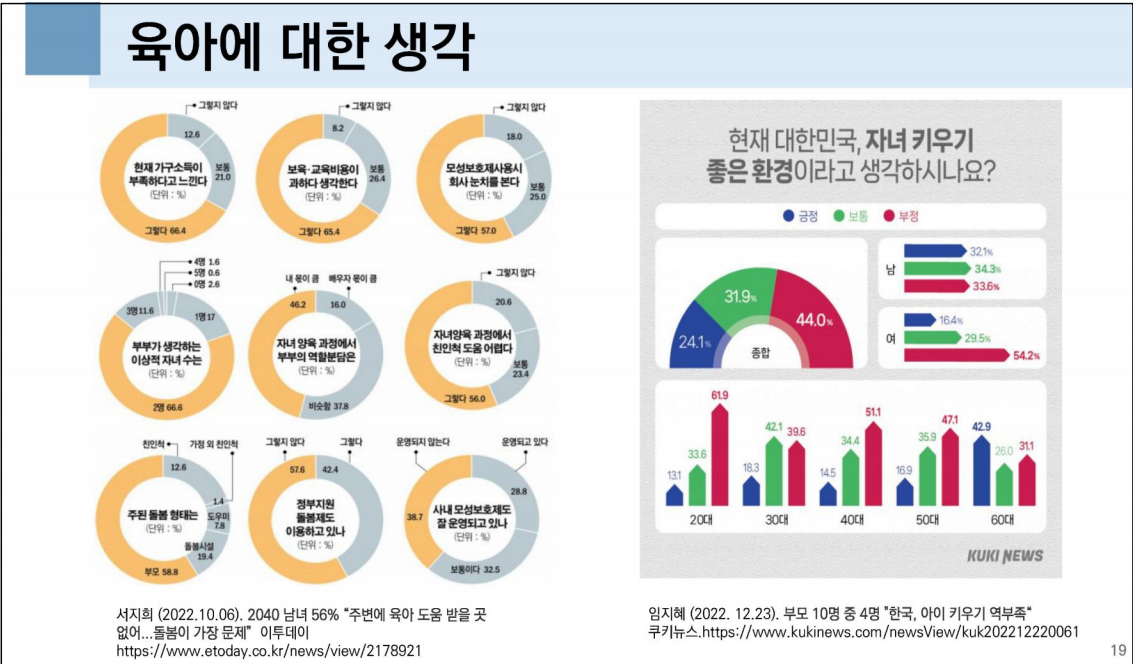
- Jihun 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 Catherine Tami-Lalanda** (New York University)
- Evan Lalaba** (New York University)

17

영아기 양육 및 보육의 중요성

- 생의 초기에 일어나는 일은 아동 발달의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침
- 생의 첫 1,000일은 뇌 발달에 깊은 영향을 미침
- 영아기 동안의 양육자와의 관계는 매우 중요
- 독성 스트레스는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조기 개입은 최적의 생애 과정 결과를 위해 중요함

18



지역사회 기반 양육 및 보육 지원



출처: Success by 6 Coalition, <https://spectrumlocalnews.com/tx/austin/news/2019/04/27/coalition-aims-to-improve-outcomes-for-young-texans>

21

감사합니다

• 2024년 제2차 한국보육진흥원 정책 포럼 •
영아기 보육·양육 지원, 무엇이 필요한가

주제발표 ②

영아기 보육·양육, 어떻게 할 것인가

박유정 교수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2024년 제2차 한국보육진흥원 정책 포럼

영아기 보육·양육, 어떻게 할 것인가 - 부모 지원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유정

영아보육을 위한 기존의 정책제언

-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제도에 강제성 부여(미사용시 소멸되는 방식)
- 대체인력 활용 기업에 대한 장려금 상향 지원
- 예상치 못한 일 발생 시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시스템 정비
- 가정 내 개별보육 돌봄 체제화
- 아이돌보미 사업 내에서 영아보육서비스의 가정 내 돌보미 확대 보급 또는 별도의 영아전담 가정보육교사 양성 보급
- 영아전담 가정보육교사 DB 구축 및 영아 가정과 연계
- 시터 고용 등으로 발생하는 양육비용 부담 경감
- 영아보육시설 시간운영 탄력화(시간연장 보육, 시간제 보육)
- 0-2세 영아를 위한 보육기관 환경 및 인력의 전문화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아직 무언가 부족?

무엇을 더 보완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중,

1. 부모 역할 수행이 수월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 시스템

: 신뢰로운 육아 정보 제공하고 양육코칭, 양육자의 웰빙을 지원하는 커뮤니티 센터

2. 영아 양육이 긍정적으로 논의되는 사회분위기

: 영아의 행동에서 역량을 읽을 수 있고, 놀라운 발달을 지켜보고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기쁨”을 누리는 시기.

국가는 아이가 영아이기 때문에 최고의 것을 제공

영아 보육

개별가정 보육	기관 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생활이 영아 발달에 미칠지 모르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 - 부모가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대체로 만족 (이영석, 배옥현, 2010) → 보육료 부담이 크더라도 가정 내 개별보육 선택 <p>[힘든 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한 볼일이 있을 경우 자녀를 맡길 곳이 없음 - 조부모나 친인척의 도움을 가장 많이 구함 - 만3세 이후 보육시설 이용을 가장 적절하다 생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택 이유: 돌봐 줄 사람이 없어서 - 대부분 영아전담 보육시설을 이용 - 12~18개월에 이용 시작이 가장 많음 - 교사의 질 가장 중요하게 고려 <p>[힘든 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한 볼 일이 있을 경우 자녀를 맡길 곳이 없음 - 조부모나 친인척의 도움을 구함
조부모, 친인척 보육	시터, 가사도우미, 아이돌보미, 이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택 이유: 돌봐 줄 사람이 없어서 * 믿을 수 있기 때문 <p>[힘든 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보는 사람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 급히 자녀를 맡길 곳이 거의 없음 → 시간제 보육시설, 긴급돌보미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로 돌봐 줄 수 있어서 선택 <p>[힘든 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용 부분에 불만족 - 급할 때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에게 도움 구함

이른 시기 기관보육의 보편화

- 0세아 전용보육시설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아와 부모에 대한 지원도 중요
 - 예: 가정보육교사 제도, 찾아가는 어린이집, 찾놀버스
 - 어린이집이 없는 농어촌 오지마을의 영유아
 - 대형버스를 개조
 - 친환경 장난감과 교구교재 비치
 - 전문보육교사와 운전요원이 정기적 순회
 - 영아의 관점, 부모의 관점에서 더 바람직한 것
 - 아이를 맡기고 더 오랫동안 일하는 것?
 - 아이와 함께 일 걱정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
- ➔ 가정 내 개별양육 지원의 중요성



부모의 요구조건 VS. 영아의 요구조건

- 영아의 마음과 요구에 귀 기울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허 연구원은 "아내는 2021년 2월 아들을 낳고 3개월 출산휴가에 들어갔지만 말고 있던 프로젝트의 책임자라 집에서 모유수유를 하다가, 기저귀를 갈다가도 화상회의를 했다"고 말했다.

허 연구원은 2022년 1월 마침 자신이 참여한 연구 프로젝트가 끝나면서 '육아휴직'을 쓰기로 결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며 자녀를 마음 놓고 맡길 곳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주변에 부탁할 가족이 없어 부부끼리 육아를 해내야 했다.

허 연구원에게 육아는 만만치 않았다. 일단 자신과 함께 보내는 1년이 돌쟁이인 자녀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 두려웠다. 하루종일 자녀와 12개월 동안 무얼 하며 보낼지 생각하니 막막하기도 했다. 첫 한두달은 자녀와 단 둘이 있는 생활에 적응하는 데 집중했다.

때론 자신이 사회적으로 고립된 섬처럼 느껴졌다. 허 연구원은 "문화센터나 키즈카페에 가도 보호자가 임마가 대부분이라 처음엔 그들과 어떤 말로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았다"고 했다.

1. 부모 역할 수행이 수월하도록 하는 밀착 지원 시스템 마련

가정양육, 부모역할의 중요성

12개월 이하 자녀가 있는 취업 여성(노성향, 2010):

- 조부모 보육 비율이 가장 높음
- 영아의 월령이 높을수록 기관 보육 비율이 높음
- 어머니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친인척·베이비시터에 의해 보육되는 비율이 높음

그러나 기관보육, 가정 내 보육, 그 외 상관없이

부모는 아이의 '생애 첫 책임이자 평생 책임' (김현정, 2022)

- 아이는 부모의 손을 잡고 어린이집에 갑니다.
- 부모가 교사와 대화하는 것을 보고 듣습니다.
- 부모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하는 것을 보고 듣습니다.
- 아이가 입는 것, 먹는 것, 가지고 노는 것, 읽는 책, 놀이 허용 시간, 부모와의 대화량, 스크린과 노출되는 시기와 양 등.. 부모가 대부분을 결정합니다.
- 게다가, 부모들은 투표를 통해 영아의 웰빙에 영향을 미칠 정책들을 결정합니다.

1. 부모 역할 수행이 수월하도록 하는 밀착 지원 시스템 마련

부모가 자신의 역할과 영향력에 대해 & 영아(내 자녀)에 대해 이해할 필요

자녀 성장주기를 중심으로 한 부모 생애주기와 핵심과제

부모생애 주기	자녀성장 주기	핵심과제		주요내용
자녀 영아기	영아기	부모역량 강화	애착 및 신뢰감 형성	안정적인 심리적, 물리적 환경의 제공 : 영아의 필요에 대한 민감성, 자녀의 특성과 안정적인 애착과 신뢰감 형성을 위한 양육조건 조성
			의사소통 능력 강화	
		자녀이해 역량강화	발달단계 이해	영아기 신체, 인지, 언어 등의 발달단계 이해
		자원활용 역량강화	영아 관련 정보 활용 및 기관 이해	어린이집 종류와 차이 이해 아이돌보미 이용 이해 자녀 건강과 관련된 먹거리 혹은 각종 용품에 대한 이해와 활용
교육과정 이해	영아(0~2세) 대상 표준보육과정 이해			

(김현정, 2022)

1. 부모 역할 수행이 수월하도록 하는 밀착 지원 시스템 마련

부모가 자신의 역할과 영향력에 대해 & 영아(내 자녀)에 대해 이해할 필요

자녀 성장주기를 중심으로 한 부모 생애주기와 핵심과제

부모생애 주기	자녀성장 주기	핵심과제		주요내용
자녀 영아기	영아기	부모역량 강화	애착 및 신뢰감 형성	안정적인 심리적, 물리적 환경의 제공 : 영아의 필요에 대한 민감성, 자녀의 특성과 안정적인 애착과 신뢰감 형성을 위한 양육조건 조성
			의사소통 능력 강화	
		자녀이해 역량강화	발달단계 이해	영아기 신체, 인지, 언어 등의 발달단계 이해
		자원활용 역량강화	영아 관련 정보 활용 및 기관 이해	어린이집 종류와 차이 이해 아이돌보미 이용 이해 자녀 건강과 관련된 먹거리 혹은 각종 용품에 대한 이해와 활용
교육과정 이해	영아(0~2세) 대상 표준보육과정 이해			

**개별 자녀 및 부모의 특성 이해:
일반론으로는 부족**

(김현정, 2022)

1. 부모 역할 수행이 수월하도록 하는 밀착 지원 시스템 마련

정보제공플랫폼

"맘카페로는 부족, 맞춤 육아정보 없나요?"...'맘들의 맘' 사로잡다

머니투데이 | 김성희 기자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11291629356058>



김 대표는 "시작 1년을 맞아 머니투데이 유니콘팩토리와 인터뷰를 갖고 "부모로서 겪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은 결국 부모의 경험에서 나온다는 것을 확신했다"며 "다양한 부모가 자유롭게 자신의 콘텐츠를 풀어냄으로써 그 안에서 솔루션을 찾을 수 있는 서비스를 지향한다"고 말했다.

**SNS, 민간 육아정보플랫폼: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신뢰롭지 못한 정보도 혼재**

- '육아정보의 홍수' 속에서 상이한 조언이 혼란을 초래하기도
- 육아관련 상품의 광고 통로로 이용되기도
- 정서적 지지도 제공하지만, 한편으로 비교와 경쟁, 불안도 초래

영아를 기르는 양육자에게 ① 신뢰로운 육아 정보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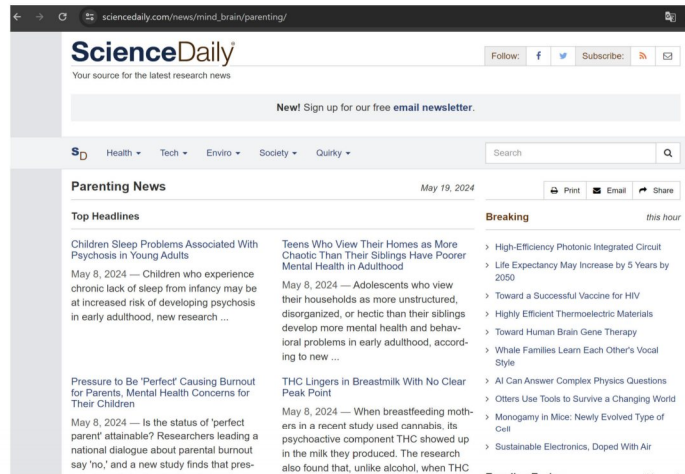
② 정서적 지지, ③ 1:1 양육 코칭 제공하는 '길잡이'가 필요

➔ 공공의 영아보육·양육정보플랫폼

1. 부모 역할 수행이 수월하도록 하는 밀착 지원 시스템 마련

① 공신력 있는 과학적 육아정보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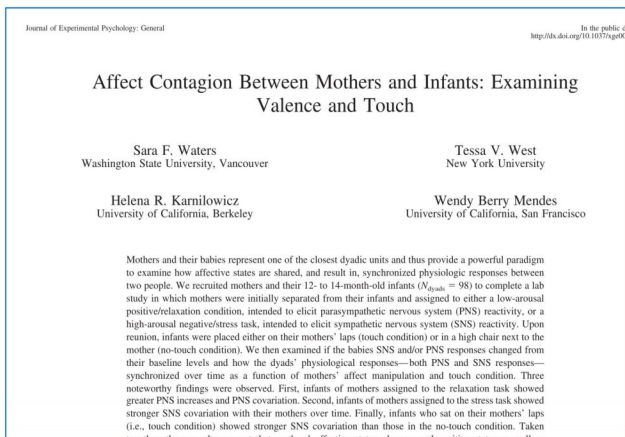
최신 연구결과를
양육자가 이해하기
쉽게 전달



1. 부모 역할 수행이 수월하도록 하는 밀착 지원 시스템 마련

② 양육자의 심리적 웰빙 모니터링: 부정적 정서의 전이

- 양육자와 영아의 심리적 웰빙 및 정서상태는 서로 연결되어 있음



양육자의 스트레스, 집중양육태도 등
측정. 지지와 상담지원.

양육자 웰빙 모니터링 (양육자의 정서,
신체적 건강 케어)

1. 부모 역할 수행이 수월하도록 하는 밀착 지원 시스템 마련

③ 영아 양육 코칭

- 집과 가까운 곳에 센터 마련
- 양육 관련 상담 및 부모-영아 놀이 상호작용 코칭
- 영아 기질, 부모 성향 파악. 양육자의 강점 발견
- 영아 행동 해석, 영아의 의도 이해 지원
- 긴급 시간제 돌봄도 제공 가능

➤ 영아양육 코칭 예

- 놀이동안 끊임없이 자녀에게 말을 건네며 자녀의 주의를 따라가기보다는 계속해서 주의를 전환시키는 경우
- 발달상 자연스러운 행동을 반항적 행동으로 오해하는 경우
- 영아에게 필요한 지원을 좁은 범위로 한정하고(애착과 신뢰 형성, 건강과 위생에 한정), 영아가 유능하지 않다고 보는 경우(말을 해도 잘 알아듣지 못하므로 책을 읽어줄 필요가 없다)

✓ 영아-양육자 상호작용 분석

영아-양육자 놀이 관찰 Interaction Rating Scale (Anme et al., 2010)

영아	양육자
자율성 및 주체성	자율성 발달에 대한 지원
반응성	반응성을 촉진하는 노력
공감성	공감성에 대한 지원
운동 제어	인지발달에 대한 배려
정서 제어	사회정서발달에 대한 배려
둘 간의 조화로운 관계 정도	

✓ 양육자의 자율성 존중 상호작용 분석

연번	자율성 발달에 대한 지원
1	양육자는 과제를 소개할 때 적어도 5초 동안 아이가 도구를 혼자서 만지는 것을 허용한다.
2	설명 중에 아이가 과제를 시작하려고 하면 말을 멈춘다.
3	아이가 성공했을 때 4번 이상 다시 해보라고 하지 않는다.
4	아이가 스스로 과제를 완성하도록 바로 도움을 주지 않는다.
5	아이가 짜증낼 때는 과제를 일시 중단한다.
6	말로 설명한 후 아이가 혼자 해보도록 적어도 5초를 기다린다.
7	아이가 과제와 무관한 방식으로 놀잇감을 다루는 것을 허용한다.
8	아이의 과제 수행에 대해 비난하지 않는다.
9	아이의 과제 수행을 중단시키기 전에 한 번은 아이가 스스로 시도하게 한다.

✓ 자율성 지지 방법을 보여주는 연구결과 소개

관심 전환하기

아기가 이미 잡고 있거나 보고 있는 물체가 아닌 **다른 물체에 흥미를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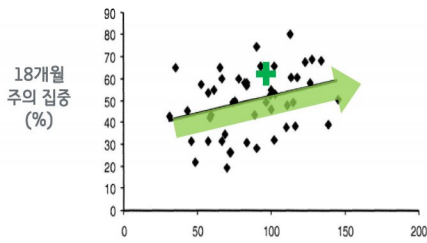
00아, 여기 공 좀 봐봐.
나비도 있네, 그치?
“나비, 안녕~”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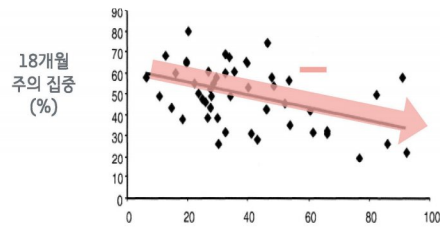
관심 유지하기

아기가 이미 잡고 있거나 보고 있는 물체에 대해 **흥미를 유지**

곰돌이가 제일 좋아?
00이가 곰돌이 귀를 만지네?
귀가 보들보들하다, 그치?



10개월 & 18개월 놀이 중 유지하기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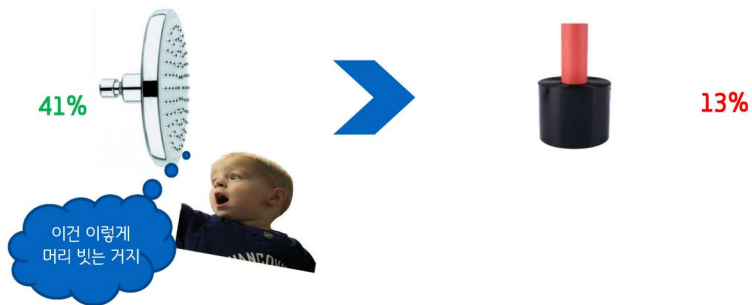
10개월 & 18개월 놀이 중 전환하기 전략

(Bono & Stifter, 2003)

아이가 가리킨 물건에 대해 설명하기
VS.
가리키지 않은 물건에 대해 설명하기



아이의 정보 습득과 기억:
가리켰을 때 들은 정보를 더 잘 습득하고 오래 기억함



- 영아를 가르치기 가장 좋은 순간은 영아가 그것에 관심을 가질 때
 - ◆ 유지하기 전략: 이미 관심이 있는 물체에 대해 주의 유지시키기 (“공을 보고 있구나~”)
 - ◆ 영아의 주의 파악하는 법: 보는 것, 잡는 것, 가리키는 것, 주로 가지고 노는 것에 대한 관찰
- 영아가 이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탐색을 지원
- 성인 주도의 선행학습은 배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

➤ 영아의 역량

- 걸음마기 영아가 가지고 있는 문제해결, 동기, 사회적 역량을 양육자가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지원
- 양육자의 지원은 영아가 역량을 발휘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그 효과는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됨
- 예: 문제해결역량
 - ✓ https://www.youtube.com/watch?v=zm_raA8W5bs
 - ✓ <https://www.youtube.com/watch?v=Ev8qYgFkc-Y>
 - ✓ <https://www.youtube.com/watch?v=PXZISfWT2ul>

2. 영아 양육에 대한 긍정적 담론 형성

영아의 변화를 지켜보는 기쁨을 느끼고

양육자로서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시기

영아 양육

- 부담, 힘듦, 독박 육아, 스트레스, 경력단절, 사회적 고립...
 - 부정적 이미지와 연합

<https://youtube.com/shorts/UMtwFnu5R4I?si=YPn3w2koiUAWUL>

<https://youtube.com/shorts/5PJ-rPD1xeQ?si=27j3kyqJqgSTQL5d>



2. 영아 양육에 대한 긍정적 담론 형성

영아 양육자가 자부심을 느끼는 사회

영아 양육

- 밀착 지원, 사회적 지지, 칭찬, 격려, 성장, 자부심, 보람...
 - 긍정적 이미지와의 연합으로 변화

국가는 이 아이가 “아이” 이기 때문에 최고의 것(물질, 교육 등)을 제공

한국영유아보육학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Vol. 133, 2022. 3. 1. pp. 77-101.
<https://doi.org/10.37918/kce.2022.3.133.77>

영아기 첫째 자녀를 둔 어머니가 인식한
육아행복에 관한 개념도 연구*

정 아 룡**

[요약]

본 연구는 영아기 첫째 자녀를 둔 어머니가 인식한 육아행복의 개념을 구조화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36개월 미만 영아기를 양육하고 있는 10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2개 집단으로 나눠 각각 한 차례씩 브레인스토밍을 실시하고 27개의 진술문을 확보하였다. 확보된 진술문은 연구자의 편집 과정을 거쳐 총 10명이 직접 분류 및 평정을 하도록 하였다. 각 진술문의 분류와 평정 값에 대해 다차원분석과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개념도를 작성하였다.

분석 결과, 육아행복은 2개 차원과 5개의 군집으로 구성된 개념도로 나타났다. 설정된 차원은 ‘자기가치’, ‘타인가치’, ‘자녀와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이며, 이에 따른 군집은 ‘기쁨’, ‘자기성장’, ‘사회적 지지’, ‘심취감’, ‘주관적 안녕감’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육아행복에 대한 개념적 구조를 파악하는데 기초자료로 제공되고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영아기 자녀, 육아행복, 양육보람, 육아안락, 어머니됨, 개념도 연구

감사합니다.

• 2024년 제2차 한국보육진흥원 정책 포럼 •
영아기 보육·양육 지원, 무엇이 필요한가

주제발표 ③

영아기 보육·양육지원을 위한 정책 제안

양미선 선임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2024년 한국보육진흥원 정책 포럼
「영아기 보육·양육 지원, 무엇이 필요한가」

영아기 보육·양육 지원을 위한 정책 제안

2023. 6. 10(월)

양미선 선임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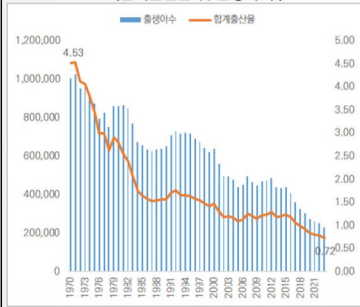
1. 영아 및 영아 가구 특성
 - 가. 영아 수
 - 나. 영아 가구 특성
 - 다. 영유아 자녀양육 유형
2. 영아기 보육양육지원 정책
 - 가. 서비스 지원
 - 나. 현금 지원
3. 한계 및 개선방안

1. 영아 및 영아 가구의 특성

가. 영아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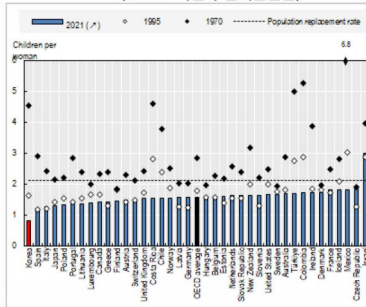
-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3년 기준 0.72명으로 초저출산 현상 지속
 -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인 유일한 국가('21년 기준 OECD 평균 1.58명)
 - '24년에는 0.6명 대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 '국가소멸'의 위기에 봉착하고 있음.
- 합계출산율 하락으로 0~2세 영아 수도 매년 급감
 - '18년까지 150만명 선을 상회하였으나, '19년 이후 급감하였고 지난 5년간 50만명 감소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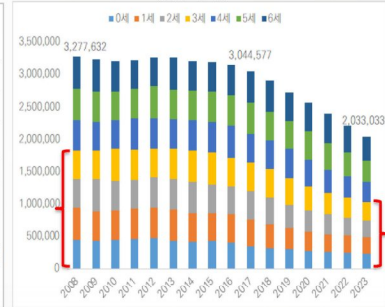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index/index.do>)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 수

<OECD 회원국 합계출산율>



자료: OECD Familydatabase

<영유아 수>



자료: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주민등록인구 통계

나. 영아 가구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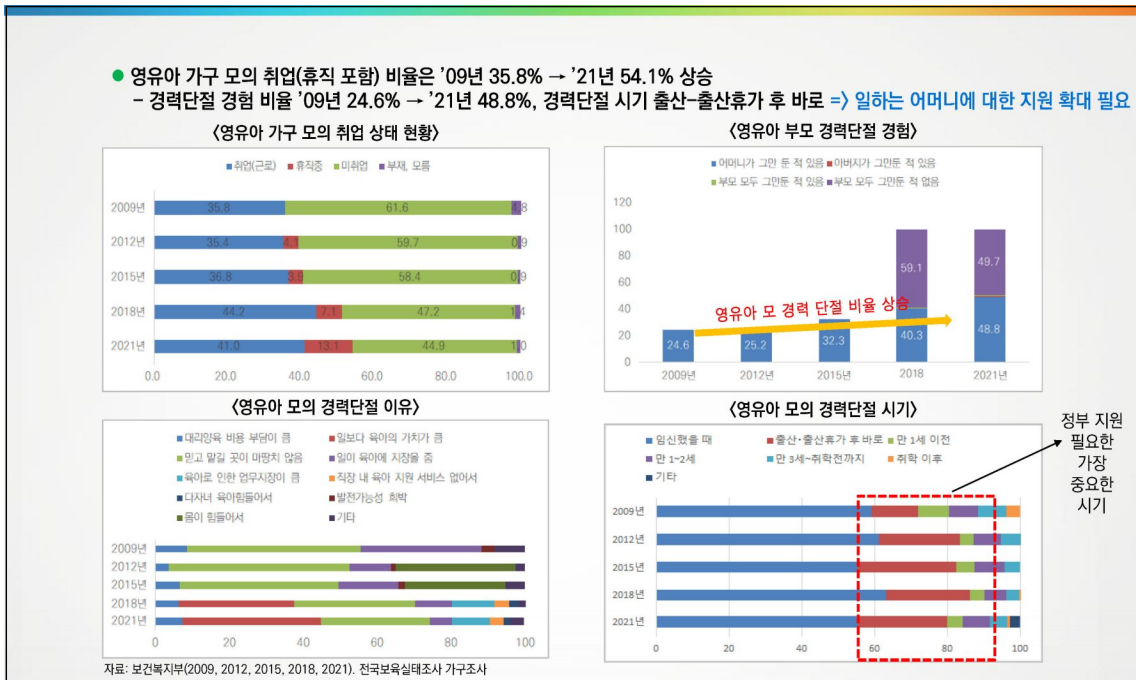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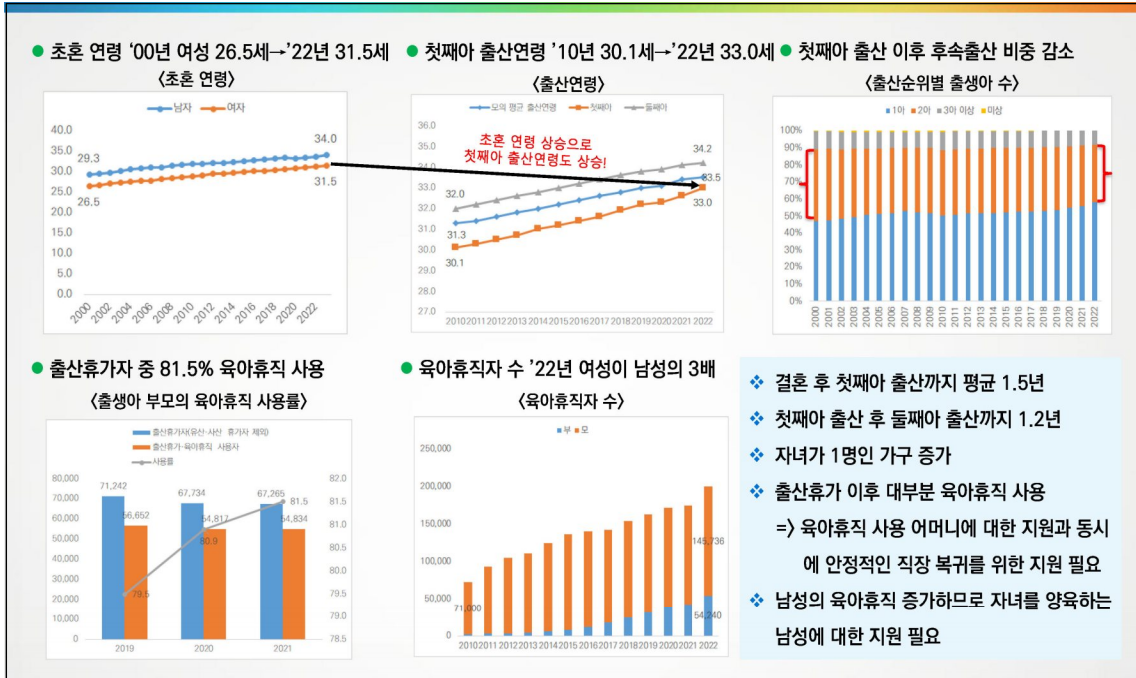
- 전국보육실태조사(2009, 2012, 2015, 2018, 2021)에 따르면, 영유아 가구의 가구원 수는 **평균 3.9명**, 대다수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
 - 부부와 자녀, 한부모와 자녀 등 2세대로 이루어진 가구가 전체의 90% 이상 차지
- 영유아 가구 절반 이상이 2명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음
 - '18년 조사까지 자녀수 2명이 다수 차지, '21년 조사에서는 1명이 다수

<영유아 가구원수 및 자녀수, 가구형태>

구분	가구원수(명)	가구형태(%)						자녀수(%)		
		부부+자녀	한부모+자녀	(한)조부모+(한)부모+자녀	(한)조부모+자녀	친인척+자녀	기타	1명	2명	3명
2009년	3.99	81.1	4.9	13.5	0.5	-	-	43.3	47.3	9.4
2012년	3.88	86.3	1.3	12.0	0.2	-	-	41.3	47.5	11.2
2015년	3.88	86.1	1.2	12.4	0.4	-	-	41.3	47.5	11.2
2018년	3.9	83.4	3.0	13.0	0.4	-	0.2	37.7	49.0	13.4
2021년	3.9	89.1	2.1	8.7	0.1	-	-	46.6	42.0	11.4

자료: 보건복지부(2009, 2012, 2015, 2018, 2021).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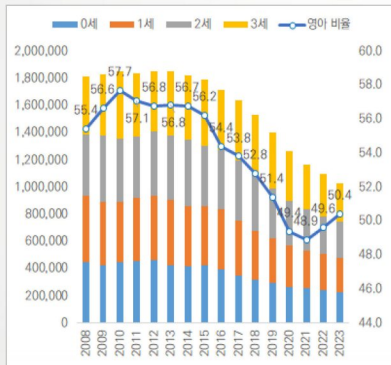
- 3세대 이상 전통적인 가구에서는 조부모 등으로부터 자녀양육 지식이나 기술 전수, 양육 지원
 - 부부와 자녀 또는 한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2세대 가구에서는 부부 또는 부모가 자녀양육 전담, 여성의 자녀양육과 가사노동 시간 및 분담률이 남성보다 더 길거나 높음



다. 영유아 자녀양육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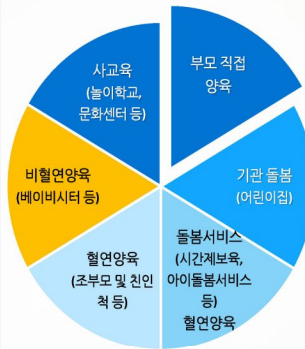
- 만 0~5세 영유아 중 영아 비중이 지속 감소하다가 '21년을 기점으로 다시 반등
- 부모의 취업 여부 및 가구 특성, 자녀연령 등에 따라 자녀양육 방식 상이
- 가정 양육, 어린이집·유치원 등 공식 보육·교육서비스, 사교육(영어학원 등)

<0~3세 영아 수>



주: 어린이집 0~2세 보육반 기준임.
자료: 행정안전부(각 년도), 주민등록인구통계, 연령별 현황

<0~2세 영아 가구 자녀양육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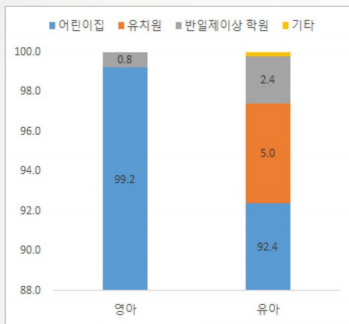
(표 V-2-1) 자녀 연령별 이용한 보육교육서비스 및 개인돌봄 서비스(중복응답)

구분	단위: % (명)					
	0개월 미만	1세 미만	1세~2세 미만	2세~3세 미만	3세~4세 미만	4세~5세 취학직전 (5세)
어린이집	2.4	9.8	46.2	72.5	66.3	41.0
유치원	-	0.1	0.4	1.5	17.2	40.8
반일제이상 기관	0.1	0.2	0.5	1.0	2.4	4.8
시간제 사교육 기관	0.8	1.4	1.6	2.2	3.1	5.8
시간제보육	0.2	0.6	1.0	1.1	0.7	0.5
지역아동센터 등 기타기관	0.2	0.2	0.3	0.4	0.6	0.9
조부모	20.2	22.5	26.1	25.1	24.8	21.3
기타 친인척	4.4	4.7	4.1	3.5	3.3	3.0
비헬연 육아인력	3.5	3.3	3.6	3.1	2.4	1.9
부모가 돌봄	91.9	87.1	68.0	54.5	50.7	51.0
(수)	(3,471)	(3,362)	(3,044)	(2,532)	(2,097)	(1,655)

자료: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 최초 이용기관: 영아 대부분 어린이집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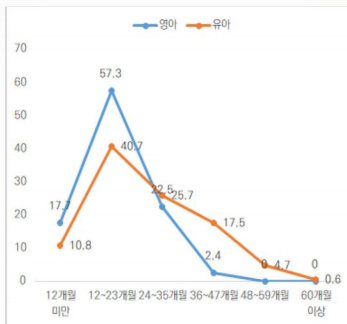
<최초 기관 이용기관 유형>



자료: 보건복지부(2021),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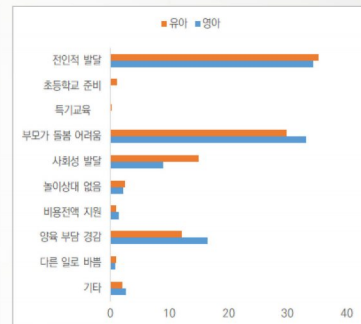
- 최초 기관 이용시기: 기관 이용 영아 중 절반 이상이 12~23개월 사이에 최초 기관 이용 시작

<최초 기관 이용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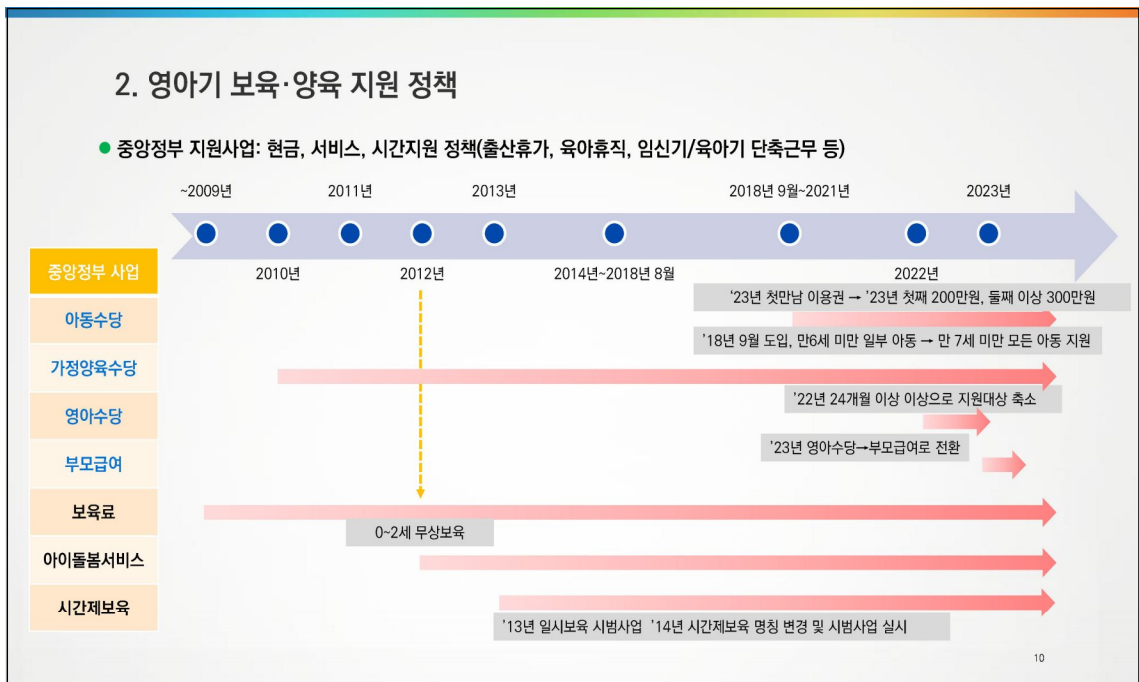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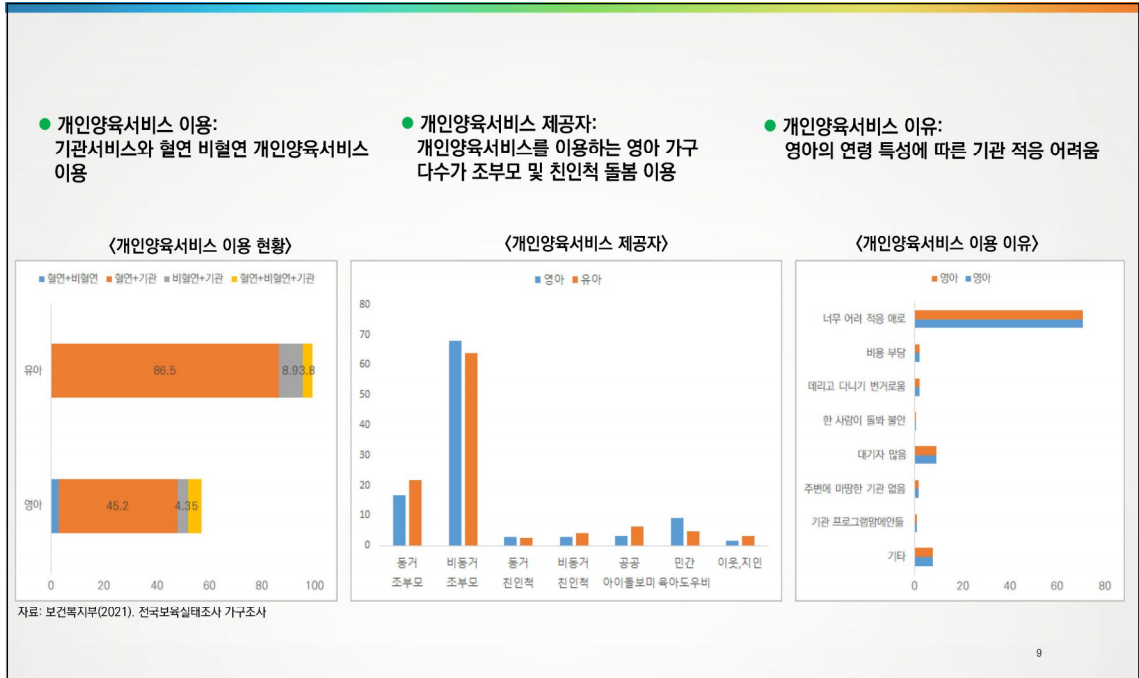


- 최초 기관 이용 이유: 부모가 돌보기 어려움과 양육 부담 경감은 유아보다 높음

<기관 이용 이유>



* '23년 부모급여 도입 후 실시되는 전국보육실태조사 통해 최초 기관 이용시기 변화 파악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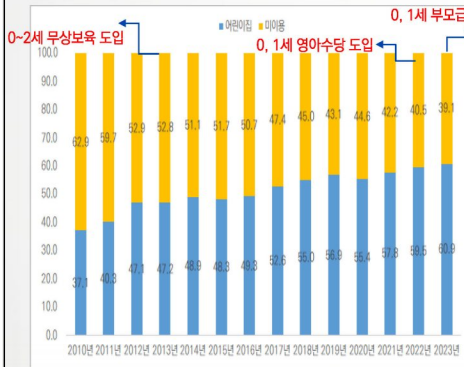


가. 서비스 지원

1) 어린이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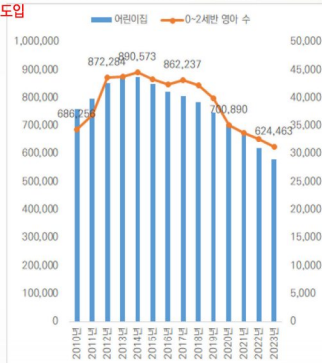
- 어린이집 공급 확대, 자녀 양육비용 경감을 위한 정부 보육료 지원 확대 → 보육 수요가 공급 창출
- '12년 0~2세 무상보육 시행으로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 및 이용률 크게 상승
- '23년 부모급여(0세 70만원, 1세 35만원) 도입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이용률 상승 → 부모급여, 저출생 맞물려 폐원 증가

〈0~2세 영아 보육서비스 이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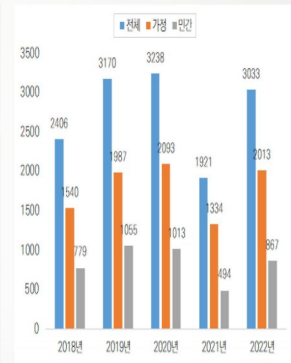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각 년도), 보육통계 행정안전부(각 년도), 주민등록인구통계, 연령별 현황

〈어린이집 수 및 0~2세 어린이집 이용 영아 수 현황〉



자료: 보건복지부(각 년도), 보육통계

〈폐원 어린이집 수〉



13

- 0~2세 무상보육 발표 후 영아 부모 사이에 '안보내면 손해' 라는 인식이 보편화 되면서 제도 개편 요구 높아짐
- 정부는 0~2세 무상보육 시행 이후 불필요한 어린이집 이용을 차단하고자 0~2세 무상보육 폐기 추진 → 국회 반대
- 가정양육수당 0~5세 전 계층으로 확대
-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감소로 어린이집 급감

2012년 0~2세 어린이집 이용자 전년 대비 20% ↑

세종일보 2012-04-04 04:18

세종시 무상보육 이후 어린이집 이용률 83%가 0~2세

지역별 무상보육을 시행한 세종시 어린이집에 0~2세 영아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지역별 어린이집 이용률이 8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 어린이집 0~2세 무상보육 실시 이후 어린이집 이용률은 전년 대비 20% 증가

세종시 어린이집 0~2세 무상보육 실시 이후 어린이집 이용률은 전년 대비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https://www.topdaily.kr/articles/2890

0~2세 전면 무상보육 폐기추진... "수용불가"(종합2보)

복지부, 보육지원정책 개편안 발표... 복지 포괄지원에 집중

연말 14일 2023-04-24 17:22

(서울=연합뉴스) 신우경 기자 = 내년 3월부터 전면 0~2세 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 정책이 폐기되고, 대신 소득 70% 이하에 한해 10만~20만원의 양육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면 무상보육 후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커다란 틈새를 보여준 것으로 보인다. 연초 0~2세 100% 무상보육을 도입할 예정이던 복지부는 "수용불가"라는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입법부는 "수용불가" 방침을 놓고 여권 내부에서조차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의원은 "수용불가" 방침을 반대하는 발언을 내놓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복지지원정책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0~2세 전면 무상보육은 정책 시행 7개월여만에 사실상 철회된다. 소득 상위 30% 가구는 보육비 전액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전입주부 가구는 보육비 지원의 절반 수준만 받게 되기 때문이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658

2세 이하 무상보육, 양육보조금 확대로 전환

복지부, 소득 상위 70% 이하에 한해 지원

24일 2023-04-24 17:22

연말 14일 2023-04-24 17:22

내년 3월부터 2세 이하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정책이 폐기되는 대신, 소득 상위 70% 이하에 한해 10만~20만원의 양육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면 무상보육 후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커다란 틈새를 보여준 것으로 보인다. 연초 0~2세 100% 무상보육을 도입할 예정이던 복지부는 "수용불가"라는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입법부는 "수용불가" 방침을 놓고 여권 내부에서조차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의원은 "수용불가" 방침을 반대하는 발언을 내놓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복지지원정책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0~2세 전면 무상보육은 정책 시행 7개월여만에 사실상 철회된다. 소득 상위 30% 가구는 보육비 전액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전입주부 가구는 보육비 지원의 절반 수준만 받게 되기 때문이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646

[전국 레이다] 인구절벽에 유치원 - 어린이집이 사라진다

뉴스룸 취재기

출판사: 2024-04-28 08:00

유치원 기자, 김소영 기자, 김소영 기자, 김소영 기자, 김소영 기자, 김소영 기자, 김소영 기자, 김소영 기자, 김소영 기자, 김소영 기자

"자립수당도 아이까지 없도록 인센티브 유치를 지원하면 마련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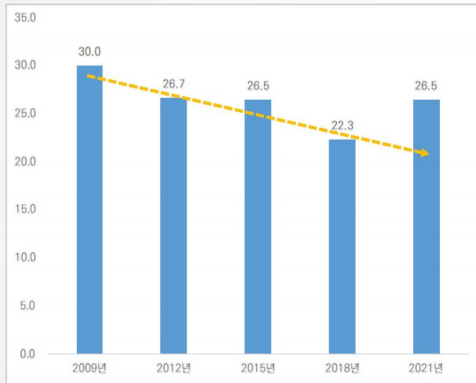


어린이집, 유치원 휴원 대란
[전국종합-연말 뉴스] 노태우훈 아·노태 도·시·자치에서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유치원 폐원 잇따르고 있다.

14

- 어린이집 최초 이용 시기 '09년 30개월 → '18년 22.3개월 → '21년 26.5개월
: 어린이집 이용시기 점차적으로 빨라짐

〈어린이집 최초 이용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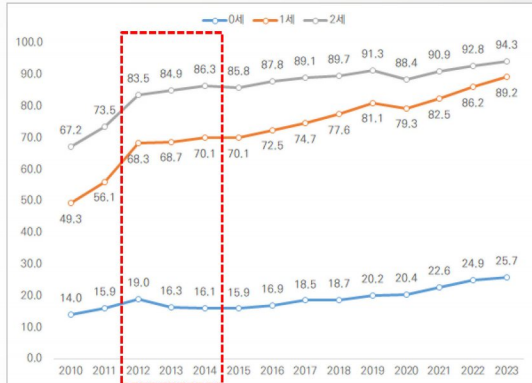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2021).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코로나19

- 어린이집 이용률 0세 '11년 14.0% → '12년 19.0% → '15년 15.9% 이후 지속 상승하여 '22년 24.9%
⇒ 부모급여 도입에도 0세 이용률 상승
⇒ 1,2세: 어린이집 보편적 서비스로 자리매김

〈0~2세 어린이집 이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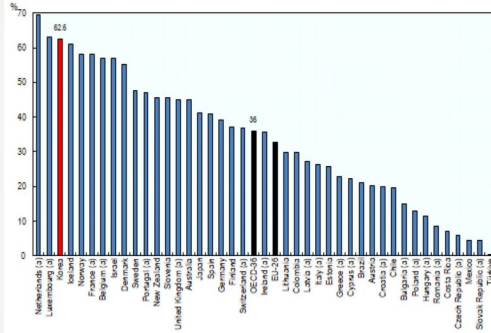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각년도), 보육통계 행정안전부(각년도), 주민등록인구통계, 연령별 현황

코로나19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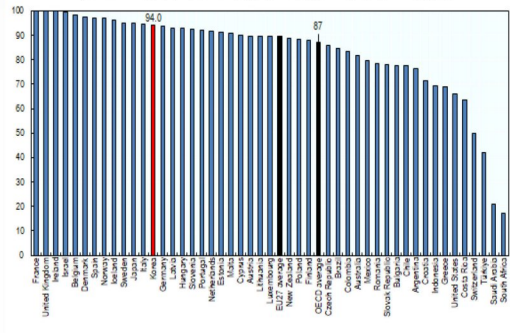
- 그러나 정부 정책이 서비스 지원 중심으로 추진됨에 따라 영유아, 특히 영아의 기관 이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부작용 낳음
- 우리나라 0~2세 보육서비스 이용률은 '20년 기준 62.6%로 OECD 회원국 평균 36.0%의 2배 가까이 됨

〈OECD 회원국의 0~2세 보육서비스 이용률〉



자료: OECD Familydatabase

〈OECD 회원국의 3~5세 유아교육 및 보육서비스 이용률〉



자료: OECD Familydatabase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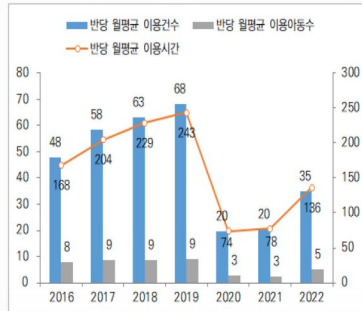
2) 시간제보육

- 시간제보육은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
 - '13년 '일시보육'이라는 사업명으로 시범사업 추진
 - '14년 '시간제보육'으로 명칭 변경하여 시범사업 추진
 - '15년 시간제보육 본 사업 추진
 - '22년~'23년 시간제보육 통합반 시범사업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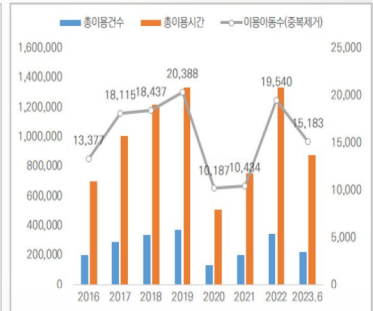
〈시간제보육 운영기관 및 제공반 수〉



〈시간제보육 월평균 이용 실적〉



〈시간제보육 연간 총 이용 실적〉



자료: 한국보육진흥원(2023). 내부자료.

17

3) 아이돌봄서비스

-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제공

구분	이용대상	정부지원시간	이용요금	기타
시간제서비스	생후 3개월~만12세 이하 아동	연960시간	기본형 11,630원, 종합형 15,110원	기본형: 아이돌봄, 종합형 가사서비스 제공
영아종일제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만36개월 이하	월200시간	시간당 11,630원	영아돌봄 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 감염된 만12세 이하 아동		시간당 13,950원	일반적인 돌봄서비스
기관연계서비스	만0세 이상 만2세 이하 만3세 이상 만12세 이하		18960원	아이돌보미 1인당 최대 3명 / 최대 5명
긴급단시간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12개월 이하			긴급돌봄: 돌봄시작 2~4시간 전 단시간 돌봄 1시간 돌봄서비스 신청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실적〉

아이돌보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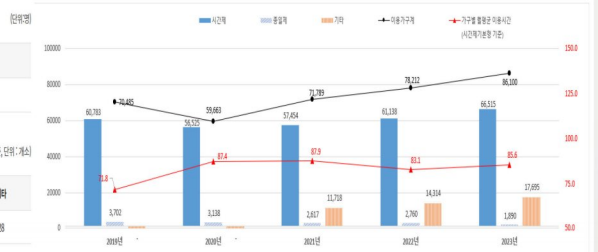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인원	24,677	24,469	25,917	26,575	26,071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구분	계	연가아 통합센터	건강가정 지원센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여성단체 여성일터	지역예탁점	사회 복지관	지원센터	기타
2023년 12월 기준, 단위: 개소	228	156	12	3	6	16	3	4	28

* 기타: WCA/WCA, 선별지원센터, 행복마을, 법인 및 단체 등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 기타: 일선지역, 기관연계, 코로나19 대응 특화방안지역

나. 현금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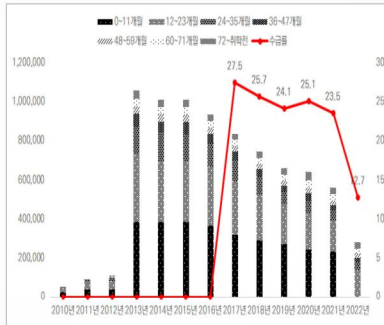
1) 가정양육수당

- 어린이집, 유치원 미이용 아동에게 대체수단으로 지원하는 비용
- 가정양육수당은 2009년 7월 도입, 출생아부터 23개월까지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게 지원
 - '11년 36개월 미만으로 확대, 지원단가 차등
 - '13년 만5세 전 계층 확대, 지원단가 차등, 36개월 이상 10만원
 - '22년 영아수당, '23년 부모급여 도입으로 지원대상 24개월 이상으로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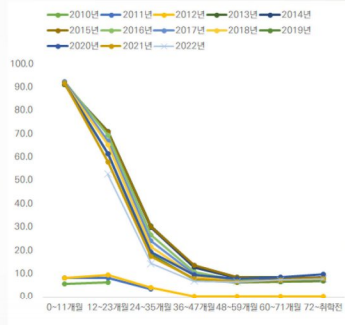
〈가정양육수당 지원단가〉

구분	2009~2010	2011~2012	2013~2021	2022~
0~11개월	10	20	20	-
12~23개월	10	15	15	-
24~25개월	-	10	10	10
36~47개월	-	-	10	10
48~59개월	-	-	10	10
60~77개월	-	-	10	10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 수〉



〈연령별 가정양육수당 지급률〉



2) 영아수당 및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과 영아수당 제도 도입 전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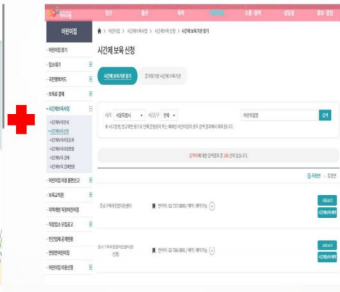
연령	2021년			2022년 이후		
	0세	1세	2-7세	0세	1세	2-7세
아동수당	월10	월10	월10	아동수당	월10	월10
보육	가정양육수당 지원			영아수당 지원		
	월20	월15	월10	영아수당	월30 → 월50 (22년)	월10 (25년)
보육	보육급여(유치)지원			부모급여(유아)지원		
	월50	월50	월28~36	부모급여	바우처 (보육료) 월50	월28 ~ 월36

- 정부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통해 영아기 집중투자 계획 발표
 - '22년도 출생아부터 영아수당 30만원 → '25년 매월 50만원 지급
- 윤석열정부는 국정과제로 부모급여 제도 도입 발표
 - '23년 만0세 70만원, 만1세 35만원
 - '24년 만0세 100만원, 만1세 50만원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3. 한계 및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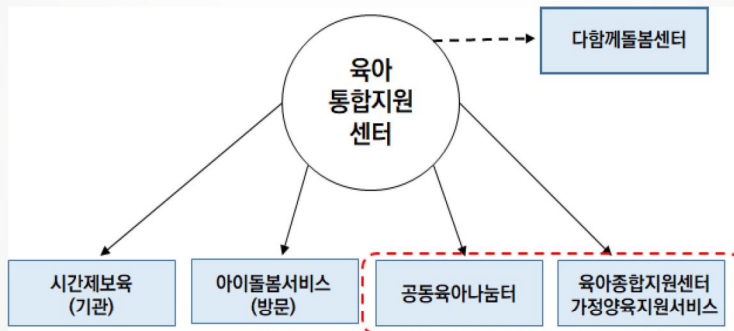
- '23년 부모급여 도입으로 영아 부모의 선택권 확보되었으나, 여전히 어린이집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 부모급여 지원 시 어린이집, 아이돌봄서비스(영아종일제서비스) 이용 불가하여 가정양육 지원서비스 지원 필요
- 전달체계 일원화 통한 서비스 중복 해소 및 관리 체계화, 수요자 편의성 제고
 - ▶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보건복지부로 이관 필요
 - ▶ 시간제보육과 아이돌봄서비스 one-stop 서비스 제공
 - : 가구 및 아동 특성에 따라 방문 또는 기관 서비스 이용 가능하도록 아이돌봄서비스와 시간제보육 신청 포털 일원화 ('24년 6월 27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보육업무 보건복지부 → 교육부 이관)



- 영유아(아동) 돌봄 통합 포털 구축 (어린이집 입소대기시스템, 처음학교로,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 ⇒ 지역내 돌봄서비스 정보제공 및 신청, 결제 one stop 처리

21

- 지역 내 영유아 돌봄 서비스 지원 및 통합 관리 위한 '육아통합지원센터' 거점기관 설치
 - ▶ 기존 육아종합지원센터 활용할 수 있으나, 시간제보육,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유보통합으로 교육부 및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되어 육아통합지원센터 설치 시 다부처 문제 여전히 발생
 - ⇒ 교육부 대민사업 경험 없고, 역량 부족 → 종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추진하여 온 가정양육지원 사업 축소될 가능성 높음
 - ▶ 지자체차단채장 공약 사업, 저출생 대응 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에서 별도로 육아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전달체계 설치할 가능성이 높음



22

- 소규모 또는 폐원 어린이집을 활용한 지역 밀착형 '양육지원기관' 설치 및 확대
 - ▶ 저출생, 부모급여 등 현금 지원 확대 등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감소로 폐원 어린이집 증가
폐원 어린이집 인프라와 보육 인력 활용한 육아지원서비스 발굴

표준 서비스		
육아정보제공	장난감 대여	도서대여
육아물품 대여	시간제보육	부모양육코칭
양육상담	아동발달검사	부모-자녀 프로그램

➔

양육지원센터

장난감 대여 부모코칭

육아물품 대여

부모-자녀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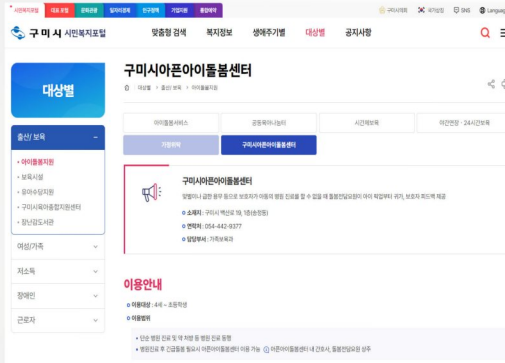
지역 내 영유아 가구 규모, 연령분포, 수요 등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 ▶ 영아 부모 고립되지 않도록 지역 관계성, 공동체성, 역동성 살릴 수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거점으로 한 '양육지원센터' 설치
표준 서비스+지역 특성 반영 특화 프로그램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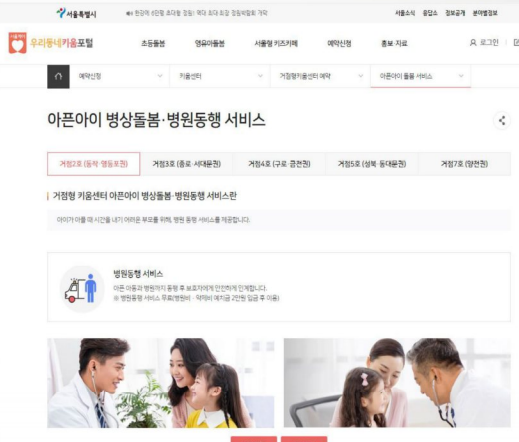
(시간제보육, 부모양육코칭, 양육상담, 육아정보 제공, 장난감 및 도서 및 양육물품 대여, 아동발달검사, 건강관리, 부모-자녀 프로그램 등) 센터 규모에 따라 인력 배치(팀장+지원 인력 등) 및 운영비(인건비+관리비+프로그램비 등) 등 지원

23

- ▶ 소규모 또는 폐원 어린이집 일하는 어머니 및 취약 가정(저소득층, 장애부모 및 장애아 가정), 지역 지원을 위한 긴급 및 취약 돌봄을 위한 돌봄지원센터 운영
예) 아픈아이돌봄센터, 농어촌 소규모 돌봄센터
- ▶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아픈아이돌봄센터 설치하고 있으며 최근 일가정 양립 지원 방안 하나로 확대 추세
예) 서울시 거점형 키움센터 아픈아이 병상돌봄-병원동행서비스 제공



* 구미시 '23년 돌봄 취약 가정 위한 병원 동행 및 돌봄서비스 제공



● 부모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확대

- 육아휴직 확대, 부모급여 지원으로 가정 내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증가하므로 지원 확대
- 출산 이후 부모 대상 프로그램 참여 어려우므로 임신부로 지원대상 확대
-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 등 자녀를 직접 기르는 아버지 증가하므로 아버지 대상 역량 강화 프로그램 확대
- 부모교육 →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개념 전환

25

Thank you

26

• 2024년 제2차 한국보육진흥원 정책 포럼 •
영아기 보육·양육 지원, 무엇이 필요한가

종합토론 ①

영아기 자녀 양육의 행복한 가치를 위한 정책 지원

김한나 부모

영아기 자녀 양육의 행복한 가치를 위한 정책 지원

김한나 부모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만 2세, 5세, 6세, 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영아기 보육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이번 토론 제안을 받고, 세 번의 영아기 양육 경험을 돌이켜보았습니다.

영아기는 아이의 발달에 매우 중요한 시기일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많은 변화와 도전을 가져다줍니다. 이 시기에 형성되는 부모와 자녀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아이의 안정적 성장을 촉진하며, 부모로 하여금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어, 후속 출산에 대한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따라서 영아기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이 토론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 관점을 고려했습니다. 첫째, 전업주부로서 첫 아이의 영아기를 보냈던 경험을 통해 느낀 신뢰할 수 있는 발달 정보와 전문적 인프라 지원의 필요성입니다. 둘째, 워킹맘으로서 영아기 자녀를 양육하면서 필요했던 다양한 정책적 지원의 중요성입니다.

1.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아기 부모를 위한 정책적 지원

1) 개별 맞춤형 영아기 양육 정보: 신뢰성과 접근성 강화 방안

아이가 태어나서 첫 1년 동안은 하루가 다르게 급격히 성장하고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부모들이 직면하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신뢰할 수 있는 육아 정보를 얻는 것입니다. 저 역시 첫 아이를 양육할 때, 맘 카페에서 정보를 찾으려 많은 시간을 소모했고, 그 과정에서 아이와 귀중한 상호작용 시간, 특히 눈 맞춤을 충분히 하지 못한 것이 큰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녀의 수면 패턴, 이유식 준비, 발달 단계에 맞는 놀이와 자극을 어떻게 제공해야 하는지, 아이가 적절하게 발달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검색하는데 낭비된 시간뿐만 아니라 얻은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불확실하여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특히, 가까운 어린이집에서 전문 인력이 실질적인 양육 경험과 정보를 제공하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에 대한 제안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아이의 기질, 부모의 성격, 양육 환경에 맞춘 개별적인 맞춤형 정보 제공을 하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신경발달 장애도 영아기에 조기 선별하여 치료 개입이 빨라질수록 예후가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발달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고, 불안함이 많은 초보 엄마들에게 전문적인 발달에 대한 정보와 또한 일상에서 직면하는 양육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경감 뿐 아니라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지역사회 중심 육아 커뮤니티 활성화

영아기 자녀를 키울 때, 마땅히 외출할 곳이 없었고 다른 엄마들과 소통할 기회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소규모 또는 폐원 어린이집을 활용하여 영아기를 키우는 부모가 고립되지 않도록 양육지원센터와 특화 프로그램 제공을 하는 것은 매우 훌륭한 아이디어입니다.

저는 지역 마을 도서관과 협력하여 ‘엄마들과 책 읽는 모임’을 기획해 17명의 엄마들이 모였습니다. 마을 도서관에서 준비해주신 간단한 점심과 아이들을 돌봐주는 도서관 선생님 덕분에 편안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필라테스 강사인 지인의 제안으로 공원에서 아기띠를 메고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 유모차를 이용해 할 수 있는 가벼운 조깅 등 운동을 하였습니다, 이런 다양한 활동, 특히 아이의 돌봄을 도와주는 손길과 어린 영아들과 모임을 할 수 있는 육아지원센터의 공동육아방 활용 덕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육아 커뮤니티가 활성화된다면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지역 밀착형 양육지원 기관에서의 시간제보육 형태

영아기 동안 아이와 함께 다니기에 적합한 환경을 찾는 것은 항상 도전이었습니다. 특히, 아이가 수유를 필요로 하거나 엎드려 놀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유모차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장소가 필수였습니다. 도서관이나 주민센터의 빈 교실을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간단한 육아용품(전자레인지, 아기 의자, 바운서), 장난감이 구비되어 있다면, 부모들은 자녀를 더 편안하게 놀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공동 육아방 대여 등이 확장되어, 가까운 어린이집의 빈 교실을 활용할 수 있으면 매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제 보육과 아이돌보미를 어린 영아기에 이용했을 때 몇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까운 곳에 시설이 없어 집에서 20분이나 버스로 이동해야 했고, 적응 기간 동안 아이가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오히려 부담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 역시 마찬가지로, 빈도 높게 자주 이용하지 않으면 아이가 돌보미에게 적응하기 어려워 결국 서비스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내에서 보육 인력을 활용하여 가까운 곳에서 영아기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친숙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엄마들이 갑자기 아플 때나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면서 바로 옆에서 시간제 보육을 하고 있으면 마음 편하게 활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든지 아이가 부모를 필요로 할 때, 아이에게 갈 수 있으며, 아이도 더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2. 영아기 워킹맘을 위한 정책적 지원

1) 긴급 양육 지원 시스템 구축

일을 하는 부모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어린이집에서 걸려오는 전화입니다. 특히 전염병이 유행하는 시기엔 더욱 그렇습니다. ‘아픈 아이 돌봄센터’는 자주 아픈 아이를 둔 워킹맘 입장에서 매우 좋은 서비스가 될 것입니다. 전염성 질환의 경우 장기간 기관 보육이 어려울 때, 가까운 곳에 조부모/친인척이 없는 상황에서는 곤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픈아이 돌봄센터’가 운영될 때, 의료 서비스와 연계되며 아동 친화적인 긴급 돌봄이 가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부모가 다쳤을 때 긴급히 아이를 돌봐줄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제가 셋째 아이를 돌보다가 다쳐 응급실에 가야 할 상황이 생겼을 때, 주변에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 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아이돌봄 선생님을 신청하려고 해도, 돌봄 신청에 몇 시간 전으로 제한되어 있어 실질적인 도움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24시간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긴급한 상황을 대비한 돌봄 시스템이 보완이 필요합니다.

다른 차원에서 부모가 직면할 수 있는 극단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 긴급 양육 시스템 구축도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극심한 떼를 부리거나, 통제가 어려울 때 실시간으로 부모의 긴급한 요청에 응답할 수 있는 전문가팀이 상시 대기하고 있으면 아동학대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모 우울증 또는 아동의 문제 행동에 대해 신속하게 개입하여 부모의 스트레스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후 부모 교육 또는 양육 코칭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긴급 양육 지원 시스템은 부모가 양육 도중 겪는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보다 건강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전체 가족의 복지를 증진 시킬 것입니다.

2) 재취업 / 초기 업무 적응기의 부모를 위한 배려 필요

부모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합니다. 재취업을 준비하거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부모의 일상과 양육의 환경에 부합하도록 프로그램 시간을 조정하고, 아이가 아플 때 출석을 인정하는 등의 유연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후 재취업으로 연계될 때, 육아를 고려한 재택근무, 유연근무제, 단축 근무를 포함하여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초기 적응기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부모에게도 해당됩니다. 초기의 적응기에는 육아하던 부모가 근무하는 특성으로 전환하는 시기로 부모뿐 아니라 아동을 위한 배려입니다.

부모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부모가 사회와 직장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부모는 자녀 양육과 개인의 성장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으며, 이는 건강한 가정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부모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세 아이를 키우며 일을 하는 것은 도전적이고 때로는 압도적일 수 있지만,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무한한 자부심과 감사함을 느낍니다.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그들의 개성과 능력을 키워가는 밑거름이 되는 것을 보면서, 그 어떤 일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언론에서는 아이를 키우는 일이 어렵고 부담스럽게만 비춰지는 경우가 많아 아쉽습니다. 이러한 보도는 아이 양육의 값지고 소중한 가치를 가리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모든 순간은 저에게 행복을 넘어 삶의 가장 큰 성취감을 제공해주었습니다. 이러한 가치가 사회적으로 더 널리 인식되기를 바랍니다.

• 2024년 제2차 한국보육진흥원 정책 포럼 •
영아기 보육·양육 지원, 무엇이 필요한가

종합토론 ②

영아기 성장을 위한 안정된 보육

조영란 원장 (다예린어린이집)

영아기 성장을 위한 안정된 보육

조영란 원장 (다예린어린이집)

1. 들어가며

영아기는 발달의 여러 영역에서 급속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영아기의 발달은 인간성장, 발달의 결정적인 시기로서 이때 형성된 발달의 기초가 이후 발달의 방향을 결정짓게 됩니다. 뛰어다닐 수 있을 만큼 빠른 속도로 신체 발달이 이루어지고,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가능할 만큼 언어능력도 발달합니다. 이후의 사회성 발달을 위해 양육자와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시각적, 청각적 자극 그리고 언어적 상호작용 등 여러 감각자극을 통해 인지적 성장을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2. 영아 가족구조와 형태의 다양화

현대 과학기술의 발달과 산업화, 도시화를 통해 가족구조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도시 집중화 및 부부 중심의 핵가족 형태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나타나게 됨에 따라 3세대 이상의 전통적인 가구에서 조부모 등으로부터 양육지원을 받아 양육을 함께 책임지는 구조에서, 2세대 가구가 주를 이루는 현재는 양육의 책임은 부모가 지게 되는 구조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는 사회적, 정서적 측면에서 복합적 문제를 야기하게 되어, 가족의 구조와 기능의 변화에 따라 양육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해줄 수 있는 전문적 보육이 필요합니다. 이런 변화된 구조 속에서 가정어린이집은 영아보육 중심의 보육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3. 저출생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의 역할

현재 심각한 저출생으로 초저출산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은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출산 장려 정책이 쏟아진 한 해였습니다. 영아기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라 출산 장려 정책의

핵심은 '일-가정 양립'에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신혼부부 맞벌이 비중은 57.2%를 기록했으며,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문제는 아이를 낳더라도 '누가, 어떻게, 아이를 돌볼 것인가'에 달려있습니다. 일 가정 양립 사회의 정착을 위해서는 부모가 일할 시간에 반드시 누군가 아이를 돌보아야 합니다. 이때 아이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안전하게 아이들을 보육과 양육을 해주어야 합니다.

중앙정부에서는 0~2세 무상보육 및 부모급여 지원과 더불어 시간제 보육사업 등 다양한 영아기 보육·양육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0~2세 무상보육 도입으로 보육수요가 증가하고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증가함에 따라 영아들을 중심으로 보육하는 가정어린이집은 영아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영아보육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의 최대 장점은 접근성입니다. 집과 가까운 곳에서, 집과 같은 공간에서 하루일과를 보낸다는 것은 환경변화에 민감한 영아기 아이들에게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또 하나의 장점입니다.

6개월~36개월의 영아들의 단시간, 일시적 보육수요 발생에 필요한 시간제보육 사업 또한 앞에서 설명한 가정어린이집의 장점을 생각해 볼 때 가장 최적화된 보육 기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영아들은 놀면서 자란다

영아들은 먹고, 자고, 배변하기 같은 일상생활 이외에 깨어있는 대부분의 시간을 놀이하며 보냅니다. 영아들에게 놀이는 하고 싶고, 재미있는 즐거운 행동일 뿐만 아니라 영아의 성장과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무언가를 알아가고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놀이를 통해 영아의 개별적인 발달 수준이 나타나고, 놀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주고받는 언어적 경험은 의사소통 기술을 증진 시킵니다. 놀이 과정에서 교사와 주고받는 상호작용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영아의 놀이는 지속시간이 짧고 시시각각 변하며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영아기는 또래와의 놀이 상호작용뿐 아니라 교사와의 접촉과 보살핌을 통해 안정을 찾는 일상의 경험 또한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가정어린이집의 교사들은 영아가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고 놀이를 시도할 때 발달에 적합한 지원을 하기 위해 다양한 재교육과 함께 영아 중심 보육을 통해 쌓아온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육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발달 수준에 따른 놀이 지원으로 영아의 고른 성장을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나가며

저출생으로 인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들의 숫자는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어 따라,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어린이집의 폐원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영아를 중심으로 보육하는 가정어린이집의 폐원 속도가 가장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누가, 어떻게 아이를 키울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부터 먼저 해소되어야 합니다.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부모가 직접 영아를 돌볼 시간을 보장하는 근로제도 개편과 영아를 보육하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보육해주며 함께 아이를 돌봐줄 신뢰할 수 있는 유연한 보육 시스템이 병행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문헌

- 정옥분(2013), 아동발달의 이해(학지사)
 보건복지부(2020), 제4차 표준보육과정해설서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24), 놀면서자란다 0~2세 보육과정

• 2024년 제2차 한국보육진흥원 정책 포럼 •
영아기 보육·양육 지원, 무엇이 필요한가

종합토론 ③

영아와 부모의 이익을 지지하는 영아 양육지원정책

김정신 센터장 (부산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아와 부모의 이익을 지지하는 영아 양육지원정책

김정신 센터장 (부산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국가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라는 심각한 저출생 위기와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논의와 결렬을 반복해 오던 영유아 보육과 교육의 통합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 시기에, 한국보육진흥원의 ‘영아기 보육·양육지원, 무엇이 필요한가’에 관한 정책 포럼은 매우 뜻깊고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포럼을 마련해주신 나성웅 원장님과 영아 보육·양육의 중요성과 그에 맞는 적절한 보육·양육 방안, 그리고 보육·양육의 정책적 지원은 어떠한지, 어떠한지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미 있고 중요한 주제발표를 해주신 발제자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 발달에 있어서 영아기가 갖는 의미와 특성은 아동학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활발하였던 1980년대 이후부터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발달의 기초성, 누적성과 같이 영아기의 중요성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적 추론을 넘어 아동 관찰을 통한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는 영아기는 많은 발달의 결정적 시기 혹은 민감기임을 확인하게 하였고, 인간 생애 초기 환경과 그 영향에 대해 폭넓은 이해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더불어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첨단화된 과학기술은 오랫동안 미지의 영역이던 뇌 발달의 비밀을 밝혀주었고, 더욱 명료하게 생애 단계별 발달과업을 이해하고, 특히 영아기 동안 양육자와의 관계와 초기 환경이 얼마나 장기적이고 누적적인 영향을 개인에게 미치게 되는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신 연구와 사례에 근거한 성지현 교수님 발제를 통하여 영아 보육·양육 지원정책 입안에 있어서 영아의 관점과 이익이 상황 논리에 의해 훼손되거나 간과되어서도, 양보 되어서도 안 되는 우선 기준임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영아기 보육·양육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영아 관점에서 바람직한 것일까?’ 이에 대한 발제에서 박유정 교수님은 어린이집에서의 보육이나 혹은 가정에서 양육 등 각 가정의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선택지가 있을 수 있지만, 너무 이른 시기부터 기관보육이

보편화된 현황에 대한 우려와 영아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선택이 되는 지원체계 마련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맡기고 더 오랫동안 부모의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부모의 일할 권리를 지켜주는 지원정책 방향이 아니라, 일에 대한 걱정 없이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부모 됨의 권리를 지켜 줄 수 있는 방향이 간과되지 않아야 하며 가정 내 개별 양육지원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별 양육의 어려움을 보완하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하여 영아 양육에 대한 긍정적 담론이 형성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미선 선임연구위원님의 세 번째 발제를 대하면서, 2012년에 시행되었던 영아 무상보육 정책이 과연 누구에게 유익한 결과가 되었는가를 반문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21년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이루어진 ‘영아수당 도입방안 연구’를 살펴보면, 0~1세아를 둔 부모가 직접 양육을 희망하는 시기(평균 33.2개월)와 어린이집 입소에 적합한 시기(평균 31.9개월)가 모두 31개월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영아 자녀를 둔 부모가 선호하는 양육방식과 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양육지원정책이 불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아기의 기관 이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부작용은 보육·양육지원 정책이 영아와 부모의 관점보다는 그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해왔던 경제성과 효율성의 원칙과 궤를 같이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가 될 영아를 위한 보육·양육 지원정책은 근시적인 정치쟁점이 되어서도, 현재를 무겁게 하는 경제부담의 제거책으로만 여겨져서도 안 될 것입니다. 아마도 자녀들의 필요를 직감적으로 인식하는 부모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했던 정책들이 심각한 저출생 위기를 초래하는 한 가지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과한 비약일까요?

결론적으로 영아기 양육·보육 지원은 부모가 직접 어린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식이어야 할 것입니다. 유아기 부모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는 것을 보편적으로 여기지만, 영아기 부모들의 경우 직접양육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나며, 서비스의 경우에도 기관보육 이외에 가정내 보육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요청이 나타납니다.

2023년 부모급여 도입은 어느 정도 영아 자녀를 둔 부모들의 선택권이 확보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는 하나, 아직 기관 중심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여전히 주력하고 있는 경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직접양육에 대한 선택지를 보장할 수 있는 육아휴직제도, 탄력유연근무제 등의 국가정책이 더 실효성 있게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현재 대기업이나 여성 위주로 활용되고 있는 육아휴직제 등의 이용가능성 제고를 위한 촘촘한 지원정책 등 적극적 제도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외에도 시간제보육(평일야간 이나

주말, 유아)의 대상과 이용 시간의 확대 방안, 가정 내 보육에 대한 선호에 부응하는 영아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확대 등이 부모들의 가정에 양육이나 직접지원을 위해서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할 방안들일 것입니다.

다만 유보통합을 앞두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확대와 활성화보다는 현실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보통합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가정양육지원 사업과 함께 교육부 및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그리하여 간혹은 계획되었던 구군센터 설립이 미루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사업예산 동결 혹은 사업 축소로 이어지기도 하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대민사업보다 기관교육 중심이었던 교육부와 교육청으로의 업무 이관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많은 우려와 불안을 낳게 합니다.

10년 이상의 기간동안 전문화되고 다양화된 중앙센터-시도센터-구군센터 연계 가정양육지원 사업과 지역밀착형의 가정양육지원사업에 있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노하우가 잘 안착되어 연속적으로 양육지원이 가능할지? 혹은 저출생 대응을 위한 지자체 사업과의 중복이나 저출생 위기 시점에 오히려 이용자인 부모들의 혼란과 민원 발생의 온상으로 전락하여 위기를 가중시키는 위협요인이 되는 것은 아닌지?

유보통합 과정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기관 통합과는 또 다른 관점에서 지원기관으로서의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리부처의 이관은 좀 더 신중하게 재검토되거나 합리적인 통합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2024년 제2차 한국보육진흥원 정책 포럼 •
영아기 보육·양육 지원, 무엇이 필요한가

종합토론 ④

영아기 보육·양육의 가치를 만들어 가는 정책

유주연 교수 (연성대 사회복지과 아동심리보육전공)

영아기 보육·양육의 가치를 만들어 가는 정책

유주연 교수 (연성대 사회복지과 아동심리보육전공)

□ 문제 제기

- 양육의 출발점인 영아와 그 부모를 지원하는 정책을 영아기 발달적 요구와 특성에 기반하여 제고해 보는 본 포럼은 정책 수요자의 필요와 입장에 포커스를 두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보육정책이 출산율 제고를 위한 하위정책 수단이 아니라 영아와 그 가족에 주목할 때 정책 수요자의 동감을 얻고 성과를 낼 수 있음
- 정책은 주제 또는 문제를 관찰하고 인식하는 사회의 관점을 반영하고 정책을 둘러싼 메시지는 사회 구성원의 인식과 상호작용함. 지난 20여년의 보육정책이 제시한 전략 및 과제를 통해 정부 또는 사회가 부모 또는 사회구성원들에 전달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육아와 양육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어떤 변화가 감지되는가?, 바람직한 방향인가? 보육은 힘들다. 정부가 육아시간, 비용 등 부담을 줄여주겠다?

〈표 1〉 중장기 보육정책의 부모양육 관련 전략 및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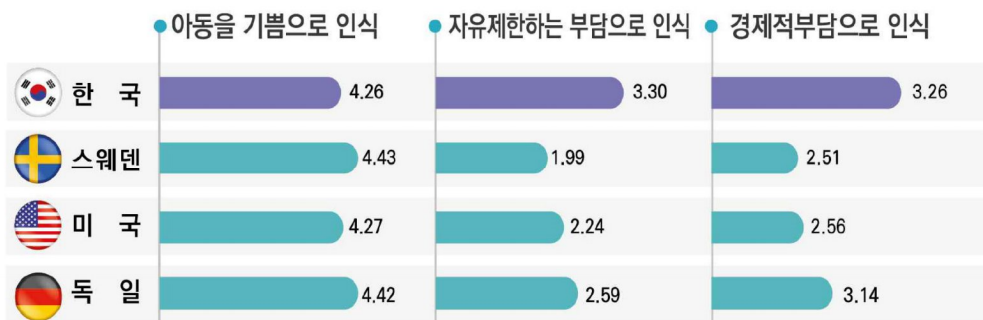
중장기 보육정책		전략 및 과제
2006-2010	새싹플랜(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	부모 육아부담 경감
2009-2012	아이사랑플랜(제1차 계획 수정·보완)	부모의 비용부담 완화
2003-2017	제3차 중장기 보육계획	부모의 보육·양육 부담 경감
2018-2022	제3차 중장기 보육계획	부모의 양육지원 확대
2023-2027	제4차 중장기 보육계획	종합적 양육지원 강화

- 본 포럼의 취지에 공감하며 3개 주제 발표문에서 드러나는 영아와 부모의 목소리, 즉 정책 수요자의 필요와 요구에 주목하여 토론문을 작성하고자 함

□ **(보육전문가? Yes! 양육전문가 No!) 전문성을 갖춘 보육 지원을 받아 부모는 행복하게 쉬운 양육을 즐길 수 있도록**

- 영아기 보육과 양육에 대한 정의를 ‘누가 아이를 기르느냐’라는 주체의 문제로 한정 곤란. ‘영아에게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느냐’라는 기능과 역할로 구분해 볼 필요가 있음
 - 영아기 발달적 중요성에 대한 강조(무엇을)나, 질 높은 상호작용 전략에 대한 안내(어떻게) 등이 부모인 양육자에게 도움이 되는지? 양육자에게 주는 신호 또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재고할 시점
 - 영아기 ‘가정역할 강조(주제발표 1)’, ‘부모역할 수행(주제발표 2)’, ‘부모역량 강화(주제발표 3)’ 등의 내용이 정책의 주요 메시지로 제시될 때, 메시지 수용 당사자인 부모에게 긴장감, 부담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음
 - 더욱 큰 문제는 부모가 아닌 잠재적 부모를 비롯한 사회 구성원들에게도 육아는 가정에서 많은 자원(시간, 비용) 동원과 지출이 불가피한 일, 익숙하지 않은 새롭고 어려운 일,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공부하고 연구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인식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음. 경쟁심리 작용으로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화되는 악순환 구조를 형성하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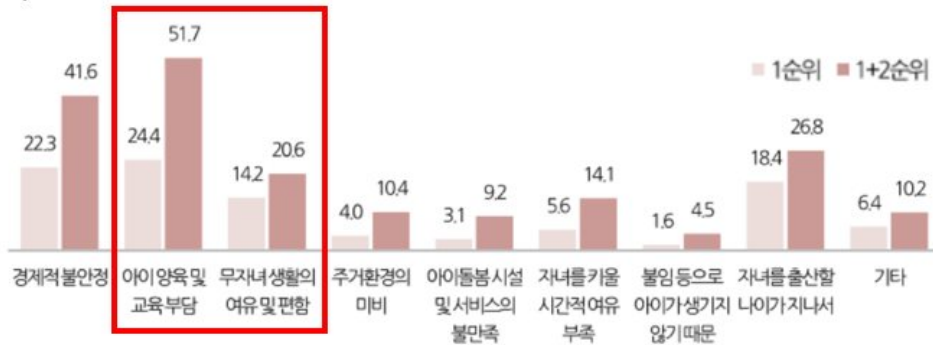
* 참조: 2023년 조선일보의 「한국이 아이를 안 낳는 ‘진짜’ 이유」 기획기사에서 “0세 자녀 키울 때 양육 스트레스가 향후 7년 내 후속 출산에 영향... 완벽 강조하는 모성 신화 수정해야”, “그럭저럭 좋은 부모이면 된다.” 헤드라인으로 연재



[그림 1] 자녀에 대한 부모 인식(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2020)

문) 자녀를 계획하기 않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위: %, N=304)



[그림 2] 향후 자녀계획 하지 않는 이유(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23). 저출산인식조사)

○ 주제발표 2의 양육에 대한 긍정적 담론 형성에 적극 동의

- 양육의 핵심가치인 ‘영아와 즐거운 교감’, ‘아가의 유능성, 변화 발견’에 집중하기에도 짧은 시간. 부모도 함께 성장하는 기회임
- 양육자가 반드시 전문적 지식을 기반으로 총력을 기울여 육아에 자원을 투입할 필요성에 대한 경험적 및 과학적 근거를 찾기 어려움
 - * 참조: 주제발표1에서 언급한 HARVARD대학 Center on the Developing Child의 영아기 연구보고서는 뇌발달 촉진의 핵심기제로 간단한 ‘Serve and Return’ 상호작용 방법 제시
- ‘힘들고 어렵고 전문성이 필요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육아’에서 벗어나 ‘자연스럽고 쉽고 편하고 즐거운 육아’라는 정책적 메시지를 통해 육아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인식 변화를 견인할 필요
- 인식 변화가 동반되지 않으면 공사적 자원 투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 영아기 보육 및 양육은 양자택일(부모의 선택권)이 아닌, 주제발표 1과 3의 제언처럼 사회와 가정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동반자 시스템으로 안착 제안

- 영아기는 양육 부담과 어려움이 가장 높은 시기. 서비스 지원과 현금 지원을 취사 선택할 경우 현금지원에 대한 반대급부로 양육자가 양육에 과도하게 몰두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과 사회적 시선(압박)을 초래
- 돌봄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 아이돌보미 제도 등의 확대 필요. 동시에 돌봄서비스는 전문성을 높여야 함

- 보육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여, 개별 영아의 발달 수준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양육상담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영아의 시기별 발달과 기질 등 개인차를 파악하여 지원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보육전문가에게 맡길 수 있는 보육과 양육의 two-way 육아 가능성 모색 필요
 - (예시) 영유아 건강검진(문진, 진찰·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 구강검진)을 초등 입학 전까지 8차에 걸쳐 의료기관에서 실시 중



[그림 3] 지금까지 이런 직업은 없었다. 극한육아편(육아정책연구소(2019). 카드뉴스)

□ 추가 제안(보론) : 임신준비부터 초등학교입학까지 one-stop으로 지원하는 “SI기반 육아코디네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

- 현재 대표적 육아정보포털은 ‘아이사랑’으로 주기능은 어린이집 검색 및 입소대기 신청임. 정보 취합 및 재구성을 넘어선 기능 혁신이 필요. 일방향 정보제공이 아닌 영아의 월령이나 가족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육아정보 및 자원을 제공하는 AI에 기반한 육아코디네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제안
- 양육자가 직접 활용할 뿐만 아니라, 보육전문가가 육아코디네이터 서비스에서 제시하는 솔루션을 분석 및 보완하여 보육에 활용 가능
 - (예시) 40여종의 행정데이터를 분석하여 위기아동선별 예측을 하는 보건복지부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발달장애아동 생애주기 데이터 통합 플랫폼

memo

memo

• 2024년 제2차 한국보육진흥원 정책포럼 •

영아기 보육·양육 지원, 무엇이 필요한가

2024년 6월 인쇄

2024년 6월 발행

발행인 나성웅

발행처 한국보육진흥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빌딩 3~6층

TEL. 1661-5666(대)

인쇄처 대승사 TEL. 044-868-2027

사전 승인 없이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2024년 제2차 한국보육진흥원 정책포럼

영아기 보육·양육 지원, 무엇이 필요한가